

한동훈, 부산 북구갑
선거전후 100일
(2026. 3.26-7.3)의 기록

김경진 변호사

목차

프롤로그

주소 한 줄

만덕2동 행정복지센터, 전입신고서 한 장으로 시작한 100일

제1부 당 밖의 시간

1장

제명 뒤의 봄

제명 두 달 뒤의 봄, 추모사와 싸움글 사이의 당 밖 정치인

2장

만덕에 집을 구했습니다

집을 구했다는 한 줄과 지역 연고 논쟁의 열흘

제2부 만덕의 주민

3장

구포시장의 아침

구포시장의 아침 인사, 눈도장과 약속 사이의 거리

4장

세 후보, 한 선거구

무소속 등록과 세 후보 구도, 단일화 무산과 기호 6번

제3부 6월 3일 밤

5장

골목의 열사흘

공식 선거운동 열사흘, 하루 일흔여덟 건의 기록

6장

새벽의 1,392표

개표 초반의 열세에서 새벽 1시 52분의 역전까지

제4부 국회로 돌아온 날들

7장

돌아온 자리

무소속 첫 등원, 감사 인사와 출국금지가 겹친 한 주

8장

투표지 한 장의 무게

새 명함과 투표용지 논쟁, 첫 법안이 된 감사원법 개정안

제5부 의원의 첫 여름

9장

공장과 법의 질문

반도체 공장의 자리를 상법의 언어로 따진 질문

10장

제복과 전기요금

연평해전의 여섯 이름, 5·18 야유 비판, 전기요금 차등화

에필로그

백일 뒤의 질문

주소 한 줄에서 의원회관까지, 열린 물음으로 남긴 100일

프롤로그. 주소 한 줄

2026년 4월 14일

부산 북구 만덕2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 전입신고서 한 장이 놓였습니다. 2026년 4월 14일 화요일, 봄이 깊어 가던 때였습니다.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등록등본을 떼고 이런저런 신고를 하는, 동네 살림을 맡은 작은 관청입니다. 이런 창구 앞에 서는 사람들은 저마다 새살림, 새 학교, 새 일터 같은 사연을 들고 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온 사람이 새 주소를 나라의 장부에 올리는 절차이니, 누구나 이사를 하면 거치는 평범한 서류 한 장입니다. 그런데 이날의 서류는 곧 전국 뉴스가 되었습니다. 신고인의 이름이 한동훈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달 반 전인 1월 29일, 국민의힘은 한때 당을 이끌던 이 사람을 제명했습니다. 제명은 당원 명부에서 이름을 지워 당 밖으로 내보내는 결정입니다. 정치인에게 정당은 이름표이자 울타리입니다. 공천을 주고, 선거를 함께 치를 조직을 붙여 주고, 그 사람의 말에 무게를 실어 줍니다. 법무부장관과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정치인이 그 이름표를 잃고, 어느 당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선거에 나가려면 어느 당의 이름도 빌리지 못한 채 무소속으로 서야 했습니다. 말 한마디, 걸음 하나의 무게를 오로지 혼자 감당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당 밖에서 봄을 맞은 사람이 이날 부산 북구의 민원 창구 앞에 섰고, 이날부터 그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부산 북구 만덕이 되었습니다. 서울 정치의 한복판에서 불리던 이름이 부산 골목의 주소 한 줄로 적히는 날이었습니다.

신고를 마친 그는 기자들 앞에 섰고, 그날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부산에서 '보수재건의 동남풍' 일으키겠습니다. 끝까지 부산 북구에서 정치하겠습니다." 부산은 서울에서 보면 동남쪽에 있습니다. 동남쪽 바닷가 도시에서 바람을 일으켜 주저앉은 보수 정치를 다시 세우겠다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보수재건은 전국을 향한 말이고, 부산 북구에서 정치하겠다는 다짐은 한 동네를 향한 약속입니다.

전국의 정치인과 동네의 주민, 그가 되겠다는 두 모습이 두 문장 안에 겹쳐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올라온 다른 글은 말씨가 더 조용했습니다. "만덕 주민 한동훈입니다. 이 아름다운 곳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서울의 정치 공방에도 그는 부산에서 답했습니다. 검사 한 사람을 여럿이 몰아세운다고 본 그는 "당시 법무부장관인 저를 부르세요. 부산에서 언제든 올라갑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올라간다는 한마디에 그의 발이 어디에 있는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환영은 빵 하나로 왔습니다. 그날 그의 계정에는 만덕의 이웃에게서 소금빵을 선물 받았다는 짧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빵을 건넨 사람을 동료시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의심은 말 하나로 왔습니다. 그의 게시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 전입을 '빈집털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인이 떠나 비어 있는 집을 노리고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는 "부산 북구는 '시민의 집'이지 '정치인의 집'이 아닙니다"라고 받았습니다. 선거 때만 동네를 찾아오는 정치인을 여러 번 겪은 유권자라면 품을 만한 의심이었을 것입니다. 낯선 유명인을 맞는 동네의 마음이 하나였을 리는 없습니다.

제명된 정치인 앞에는 여러 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서울에 남아 때를 기다릴 수도 있었고, 정치에서 한 걸음 물러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부산으로 몸을 옮기는 쪽을 골랐습니다. 말은 언제든 바꿀 수 있지만 주민등록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물러설 길 하나를 스스로 끊어 둔 선택으로 보입니다. 전입신고는 한나절이면 끝나지만, 그 서류 한 장을 내기로 마음먹기까지의 시간은 그렇게 짧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음 날 그는 "저의 첫번째 선거입니다. 부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장관과 당 대표를 지냈어도 유권자 앞에 제 이름 하나를 걸고 서는 선거는 쉼새 살에 처음이었습니다.

한 달 뒤인 5월 15일, 그는 무소속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6월 3일 치러진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35,056표를 얻어 당선되었습니다. 득표율은 42.96퍼센트였고,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33,664표로 41.26퍼센트를 얻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1,392표, 1.70퍼센트포인트였습니다.

6월 5일 그는 무소속 의원으로 국회에 처음 등원했고, 6월 22일에는 첫 법안인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선거를 예순아홉 날 앞둔 3월 26일부터 선거 뒤 서른 날이 지난 7월 3일까지, 꼭 100일 사이의 일입니다.

전입신고서의 주소 한 줄은 물음 하나를 남겼습니다. 주소를 옮긴 사람은 주민이 되는가, 후보가 되는가. 신고를 마친 그가 떠난 뒤에도 창구는 여느 날처럼 다음 민원인을 맞았을 것입니다. 소금빵을 건네는 손과 빈집털이라는 말이 한 골목에 함께 있던 봄날이었습니다.

답은 서류를 낸 사람이 아니라, 그 서류를 받아 든 동네가 쥐고 있었습니다.

제 1 부

당 밖의 시간

제1장. 제명 뒤의 봄

2026년 3월 26일~4월 9일

2026년 3월 26일, 한동훈의 페이스북에 추모 글이 올라왔습니다. 16년 전 서해에서 희생된 천안함 46용사를 기리는 글이었습니다. 구조 작업을 하다 순직한 한주호 준위의 이름을 따로 불렀고, 서해를 지키다 목숨을 바친 쉰다섯 용사를 대한민국의 영웅이라 적었습니다. 별이 된 영웅을 기억하는 데에 주저함이 없고, 곁에 있는 영웅을 예우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장은 단정했고, 글의 끝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같은 글에서 그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맞는 서해수호의 날 슬로건에 영웅이라는 말이 보이지 않는다면, 장병들을 영웅으로 기억하지 않는 정부는 옳게 된 정부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당 밖에 있어도 어조는 공직자의 것이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계정에 곁이 전혀 다른 글이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첫 줄부터 거칠었습니다. "쫓았네, 쫓았어." 국회에서 진행 중인 공소취소 국정조사를 두고 쓴 글이었습니다. 그의 글에 따르면, 이 국정조사의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그날 라디오에서 그를 증인으로 부르는 데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집권당 의원 190명이 단체로 저 한 명에 쫓아서 도망"갈 거면서 이런 국정조사를 뭐하러 시작했느냐고 받아쳤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올린 두 글이었습니다. 하나는 추모사의 말씨였고, 하나는 싸움판의 말씨였습니다. 예우와 품격의 언어로 나라를 말하는 전직 당대표가 한쪽에 있었고, 집권당을 향해 쫓았느냐고 소리치는 당적 없는 정치인이 다른 한쪽에 있었습니다. 둘 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2026년 봄, 한동훈은 그 두 목소리 사이를 오가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당 밖에 있었습니다. 두 달 전인 1월 29일, 국민의힘은 전 대표 한동훈을 제명했습니다. 검사, 법무부장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당대표. 직함은 모두 과거형이 되었고, 남은 현재형은 자신의 이름과 페이스북 계정이었습니다. 국회 의석이 없으니 회의장의 발언대가 없었고, 당이 없으니 대변인도 조직도 없었습니다. 제명 뒤 두 달, 그는 의원도 장관도 후보도 아니었습니다.

당 밖에서 맞는 첫 봄이었습니다. 지난 두 달을 길게 돌아보는 글은 이 보름 동안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제명은 남의 말을 받아칠 때에 스치듯 언급될 뿐이었습니다. 그 처지를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제명당한 혈혈단신이고, 1:190인데 뭐가 무서워서 도망다니는지." 190석 집권당과 당적 없는 한 사람. 그는 이 대치를 그렇게 숫자로 불렀습니다.

이 무렵 그가 벌인 싸움의 한가운데에 공소취소 국정조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첨부해 보여준 민주당의 국정조사요구서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법무부 지휘라인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조사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수사가 진행되던 때의 법무부장관이 그였습니다.

그는 공범들이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을 받은 사건이라며, 이 국정조사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증인으로 부르라고 연일 요구했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고 위증 처벌도 감수하겠다고 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 장관이었던 자신이야말로 불러 나가야 할 사람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그의 글에 따르면 민주당 쪽의 거절 이유는 날마다 달랐습니다. 수사 대상이라 안 된다는 의원이 있었고, 책임질 일이 없으니 안 된다는 의원이 있었고, 그가 나오면 난장판이 된다는 간사가 있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이 그를 조작의 "설계자"라 부르고 추미애 의원이 "주범"이라 불렀다고도 그는 전했습니다. 그렇게 불러 놓고 정작 증인으로서는 못 부르는 까닭이 무엇이냐고 그는 따졌습니다.

그를 내보낸 당도 이 공방에 얽혔습니다. 그가 옮긴 바로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처음에는 그의 증인 출석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나흘 뒤인 3월 31일, 국민의힘은 그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날 그는 적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저를 공소취소 국조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신을 제명한 당의 결정에 감사를 표하는 문장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특위가 백 명 넘는 증인을 채택하면서 정작 '주범'이라던 사람은 빼놓았느냐고 따지는 글을 올리자, 그는 그 글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내보낸 당과 내보내진 전 대표가 증인석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잠시 같은 쪽에 섰습니다. 당 밖의 정치인이 국회 회의장에 들어가는 길은 그 증인석뿐이었고, 그 문조차 남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3월 26일부터 4월 9일까지 보름 동안 그는 쉼 없이 넘는 글을 올렸습니다. 한 건에 그친 날도, 열 건에 이른 날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스무 건 넘게가 국정조사 공방이었습니다. 상대는 매번 바뀌었지만 그의 요구는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부르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춘 날은 드물었습니다. 4월 6일에는 두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고 예고하는 데까지 갔습니다.

같은 요구를 보름 가까이 되풀이한 글들에서는 억울함과 승부욕이 함께 읽힙니다. 자신을 빼놓은 채 자신에 관한 결론이 내려지는 것을 두고 보지 않겠다는 태도로 보입니다. 당 밖의 정치인에게 침묵은 곧 잊히는 길이라는 감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싸움 한복판에 자기 이름을 계속 올려 두는 일, 그것이 혈혈단신에게 남은 방법의 거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3월 27일, 싸움 글 사이에 예고 하나가 끼어 있었습니다. "내일 토요일 저녁 8시 SNL 새 시즌 첫회에 제가 나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검사와 장관과 당대표를 지낸 사람이 코미디 방송 새 시즌 첫 회에 출연자로 선다는 소식을 본인이 알린 것입니다. 방송은 이튿날 저녁 전파를 탔습니다.

그는 "저는 밖이라 아직 못봤습니다만,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적었고, 함께 출연한 배우를 두고는 자신이 팬이라 더 반가웠다고 했습니다. 소감 글에는 영화 토요일 밤의 열기에 실렸던 옛 노래도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능은 예능일 뿐"이라던 그는 한마디만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색하고 들으라는 마음으로 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무대는 예능이어도 겨냥은 정치였습니다.

오해하지 말자는 해시태그를 여러 날에 걸쳐 단 것을 보면, 예능 출연을 두고 나올 말들을 그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내 발언대가 없는 정치인에게 토요일 밤의 방송 무대는 몇 안 남은 마이크였을 것입니다. 그 무렵 그는 KBS 인터뷰 영상을 올렸고, 중앙일보 유튜브 방송에 나갔다고 알렸으며, 4월 5일에는 신촌에서 SNL을 촬영하는 날이라는 해시태그를 남겼습니다.

조직이 없는 정치인은 스스로 방송국이 되어야 했습니다.

방송이 나가던 3월 28일, 그의 계정에는 하루 열 건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가운데 여섯 건에 부산 구포시장 가게들의 이름이 해시태그로 붙어 있었습니다. 팔팔수산, 풍각반찬, 삼대왕족발, 웰빙횃집, 멸치삼촌콩이언니, 꼭지상회. 생선과 반찬과 족발과 회가 이름에 들어 있는 시장 골목의 가게들이었습니다. 민심경청로드라는 말도 함께였습니다.

자기 얼굴이 텔레비전 예능에 나오던 토요일, 그의 발은 부산 구포시장 골목을 걷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날 부산은 쉼 건 넘는 글 사이에 여섯 줄의 해시태그로만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부산이었는지 설명하는 글은 없었습니다.

시장은 부산만이 아니었습니다. 4월 1일에는 서울 경동시장 상인들을 만나고 온 가까운 이들의 글을 공유하며 한 줄을 엮었습니다. "저희는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행사가 끝났다고 떠나는 정치가 아니라 상인들과 관계를 맺고 상생하는 정치를 하고 싶다는 다짐이 담긴 글이었습니다. 당을 잃은 사람의 글에 저희라는 말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튿날에는 약속을 하나 걸었습니다.

"4월 11일 토요일 오후 1시, 꽃피는 봄날 주말에 수원 팔달문 앞에서 뵙겠습니다." 지동시장과 팔달문시장을 비롯해 시장 다섯 곳이 모여 있는 수원 팔달문 앞에서 시민들을 만나겠다는 예고였습니다.

정부를 향한 논평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3월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언급하자 그는 지금이 초법적인 "경제계엄령"을 쓸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4월 3일에는 하루 여섯 건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벚꽃 엔딩"이라는 노래 제목 한 줄이 있었고, 저녁에는 오랜만이라며 라이브 방송을 예고했는데 그 글의 해시태그에는 4월 노래와 SNL 후기와 불법 국정조사가 한 줄에 뒤섞여 있었습니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멈춰 세웠다면 "부산 발전에 쓰는 돈이 그렇게 아깝습니까"라고 따지는 긴 글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당대표로 일하던 때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해 온 법이라고 그는 적었습니다. 꽃노래 한 줄과 부산을 위한 항의문이 같은 날 같은 화면에 나란히 흘렀습니다.

날 선 말이 민주당만 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4월 5일에는 "'탈영병' 홍준표, 드디어 '투항'했네요"라는 한 줄짜리 글을 올렸습니다. 무슨 일을 두고 한 말인지 길게 설명하지 않은, 짧아서 더 차가운 야유였습니다. 제명은 두 달 전의 결정이었지만, 그 제명을 전후한 보수 진영의 다툼과 공백은 이 봄에도 현재형이었습니다.

4월 8일에도 증인석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글대로라면 민주당 의원들은 여전히 부르지 못할 이유를 대고 있었고, 그는 여전히 부르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글 한 줄은 곧잘 기사 제목이 되었고, 의원들의 대답은 다시 그의 글감이 되었습니다. 말은 멀리 갔습니다. 그러나 증인 채택도, 국정조사의 일정도, 그가 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적 없는 정치인의 말은 크게 울렸지만,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직을 잃은 사람에게는 무엇이 남을까요. 이 봄의 그에게 남은 것은 자신의 이름과 말, 그것을 실어 나르는 계정 하나, 저희라고 부를 몇 사람, 그리고 어디로든 갈 수 있는 두 발이었습니다. 증인 요구는 여전히 답을 받지 못했고, 수원 팔달문의 약속은 아직 날짜가 오지 않은 채였습니다. 4월 9일, 그 발이 어디에 닿았는지 보여 주는 영상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하루 전 부산 만덕에서 백양중학교 학생들과 만나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동네 이름은 만덕이었습니다. 서울의 회의장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지만, 남쪽 도시의 학교 앞 골목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조금씩 남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제2장. 만덕에 집을 구했습니다

2026년 4월 10일~4월 19일

2026년 4월 13일, 한동훈의 페이스북에 짧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얼마 전 부산 북구 만덕에 집을 구했습니다." 이어지는 문장은 두 개뿐이었습니다. "하교하는 중학생들과 만났던 그 조용하고 살기좋은 곳입니다. 부산 시민을 위해 살겠습니다." 어떤 집인지, 언제 들어가는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상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닷새 전인 4월 8일 만덕 골목에서 찍은 영상, 학교를 마치고 돌아가던 백양중학교 학생들과 마주친 기록입니다. 집 이야기는 한 줄로 끝났고, 나머지는 동네와 사람 이야기였습니다.

그날의 동선은 뒤에 그가 공유한 월간중앙 인터뷰 기사에 남아 있습니다. 4월 13일 오전 서울 상암동에서 인터뷰를 마친 그는 오후 1시 기차로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기사는 이 인터뷰가 부산 북구갑 출마를 정한 뒤의 첫 공식 일정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 인터뷰에서 보수가 지긋지긋한 계엄과 탄핵의 바다를 건너야 한다며 "탄핵의 바다를 건너는 배를 내가 몰겠다"고, 선장을 꼭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집을 구했다는 글은 그 기차를 타고 내려간 바로 그날의 글이었습니다.

만덕이라는 이름이 그의 페이스북에 처음 등장한 것은 사흘 전인 4월 10일이었습니다. 부산, 만덕, 이름, 그리고 이름도 모르면서 안 간다로 이어지는 해시태그 몇 개가 전부인 글이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때는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두고 바깥의 말이 많던 때였으니, 동네 이름 하나를 수수께끼처럼 걸어 둔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날 그는 고등학교 친구인 건축가가 나오는 집 짓는 방송을 즐겨 본다고 오랜만에 그 친구와 통화한 이야기를 올렸고, 이튿날에는 경기도 수원의 시장 골목을 돌았습니다. 동선은 아직 전국에 걸쳐 있었습니다. 만덕이라는 두 글자만 페이스북 한구석에서 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부고가 있었습니다. 4월 11일 그는 전날 세상을 떠난 김진 논설위원을 추모하는 긴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이 잘될 때는 연락이 없다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만 전화해 쓴소리를 주던 사람, 제명당한 뒤 추운 날의 향의 집회 연단에 오르면서도 미리 연락 한 통 없던 사람이었다고 그는 돌아보았습니다. 슬프고 황망하다고 적었습니다. 당 밖의 봄에 그의 곁을 지키던 이름 하나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만덕은 부산 북구에 있는 동네입니다. 이 동네가 속한 북구갑 선거구의 국회의원이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선거에 나서면서, 북구갑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생겼습니다. 선거일은 6월 3일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사람이 그 빈 의석을 향해 내려온다는 소식은 그 자체로 뉴스가 되었습니다. 북구 주민들에게 그는 그때까지 뉴스 화면 속의 얼굴이었지, 골목에서 마주치는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시선이 고울 수만은 없었습니다. 한동훈의 게시글에 따르면 전재수 후보는 이 이사를 빈집털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인이 비운 집에 서류부터 들이민다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 무렵 그의 글에는 험지 중의 험지라는 말도 오르내렸습니다. 보수 후보에게 만만치 않은 동네라는 뜻과, 연고도 없이 선거 때문에 왔다는 의심이 그 말들 속에 겹쳐 있었습니다.

집 소식을 알린 바로 그날도 그의 계정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재수 후보에게 까르띠에 시계를 받았는지 밝히라고 몰아붙이며 "그런 새가슴으로 어떻게 대 부산광역시장을 하겠다는 겁니까"라고 적었습니다. 전재수 후보가 자신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했다고 말했다고 전하면서,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을 하면 막지 않을 것이냐고 되물기도 했습니다.

전재수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소리를 들을까 두려워 부산특별법을 막았다는 주장도 보았습니다. 모두 그의 주장입니다. 그의 글에 인용된 방송 답변에서 전재수 후보는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둘러싼 공방은 이후로도 며칠씩 이어집니다. 같은 날짜의 화면에는 시계와 배신을 따지는 글과, 집과 중학생 이야기가 나란히 올라 있었습니다.

4월 14일, 그는 만덕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상 부산 북구의 주민이 되었습니다. 보수재건의 동남풍을 일으키겠다는 선언과 시민의 집이라는 응수가 이날 그의 페이스북을 채웠고, 서울의 수사 공방을 향해서는 부산에서 언제든 올라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전입신고를 마친 그날, 그의 말에서 기준점은 벌써 부산으로 옮겨 가 있었습니다.

서류가 끝난 뒤의 기록은 좀 더 조용합니다. 소금빵을 건넨 이웃이 있었고, 4월 8일 골목에서 마주쳤던 중학생들과는 다시 만나 "또 만났습니다"라는 짧은 글이 남았습니다. 장날이 끝난 시간의 구포시장에도 들러 고생한 시민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튿날인 4월 15일 수요일 밤, 그는 만덕2동 청년 자율방범대 대원들과 야간 순찰에 나섰습니다. 수십 년 전통의 모임이라고 그는 소개했습니다. 대원들과 만덕 구석구석을 걸으며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문을 나눠 주었고, 만덕은 치안이 전국 어디 못지않게 좋은 동네이며 그 공이 수십 년 자율방범활동을 이어 온 주민들에게 있다고 적었습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부산 북구를 전국에 자랑하겠다는 다짐 끝에는 정성을 다하겠다는 말이 붙었습니다. 정성이라는 단어는 이 무렵부터 그의 글 끝에 자주 등장하는 말버릇이 됩니다. 그날의 해시태그에는 농담이 하나 끼어 있었습니다. 이 방범대에서 청년의 자격은 쉰두 살까지인데, 자신은 쉰세 살의 만덕 주민이라는 것입니다. 한 살 차이로 청년이 되지 못한 새 주민의 너스레였습니다.

동네 아저씨로 받아들여지고 싶은 마음이 배어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다음 날부터 그는 스스로를 만덕 아저씨, 북구 아저씨라고도 불렀습니다.

순찰이 있던 4월 15일의 글에는, 장관과 당 대표를 지낸 자신에게도 제 이름으로 표를 달라고 하는 선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고백도 올라 있었습니다.

4월 16일에는 만덕 레고마을을 걸었고 덕천시장에도 들렀습니다. 밤에는 자율방범대와 만덕고개에 올라, 초승달 포토존이 있는 그 고개를 참 아름다운 곳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맞서 싸울 상대가 누구일지는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며칠 사이 그는 민주당 쪽 인사들이 북구갑 출마 여부를 대통령의 지시나 당의 허락에 걸어 두고 있다며, 왜 부산 시민에게 먼저 묻지 않느냐고 따졌습니다. 조국 대표가 부산 대신 평택을 골랐다는 소식에는 자신을 피해 도망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역시 그의 주장입니다.

4월 16일 덕천시장의 한 미용실에서 그는 긴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 등이 전재수 후보의 사퇴 시점을 늦춰 북구갑 보궐선거 자체가 열리지 않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를 꿈수라고 부르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내년에도, 2028년에도, 그 다음 다른 어떤 선거에도 바로 여기 부산북갑에서 계속 출마해서 부산북갑 시민들에 대한 의리를 지킬 것입니다."

이번 선거가 사라져도 떠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선거를 보고 온 이사라는 의심에 그는 시간의 길이로 답하는 쪽을 고른 것으로 보입니다.

4월 17일 새벽, 시민들을 만나러 나가던 길에 김현철 이사장의 글을 보았다며 그는 부산이 낳은 마지막 보수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의 헌신과 용기를 여기 부산에서 이어가겠다고 적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비 오는 신만덕시장에서는 장사가 평소만 못한 날인데도 상인들이 반갑게 맞아 주었다고 적었습니다. 덕천지하상가에서는 신발가게를 하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를 만나 어려운 사정을 들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알려 도움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며, 약자 보호는 국가의 임무이고 우선순위여야 한다고 썼습니다. 그날 밤에는 덕천역으로 가서 지하철 막차가 끊기는 새벽 0시 30분까지 귀가하는 시민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고단한 귀가길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었다는 설명과 함께, 밤이 되니 일교차가 크다며 감기 조심하라는 당부를 남겼습니다.

4월 18일 토요일 오전에는 덕천역 부근에서 시민들을 만나 여기서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신은 말을 지키는 것을 걸고 정치해 왔고, 약속을 어기면 더는 정치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은 아파트 경로당의 어르신들도 찾아뵈었습니다. 그 글에는 우리 아파트 경로당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전입신고 나흘 만에 아파트 앞에 우리가 붙었습니다. 인터뷰가 실린 월간중앙이 매진되었다며 고맙다는 인사도 이날 올라왔습니다.

4월 19일로 넘어가는 새벽 0시 30분에도 그는 덕천역에 있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돌아가던 한 어머니가 피곤할 텐데도 환하게 반겨 주었다며, 평생 그 표정을 잊지 않겠다고 적었습니다. 그 글의 끝인사는 한동훈 올림이었습니다. 그 일요일의 글에는 안 떠나고 끝까지 부산을 발전시켜 보겠다는 다짐이 다시 나옵니다.

이 열흘을 보는 눈은 둘이었습니다. 한쪽은 달력을 봅니다. 의석이 비자 집이 나타났고, 전입신고 이틀날 밤부터 순찰이 시작된 순서를 봅니다. 모든 동작이 6월 3일에 맞춰져 있다는 시선입니다. 만덕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날부터 집 공개, 전입신고, 첫 순찰까지 걸린 시간은 겨우 닷새였습니다. 다른 한쪽은 발걸음을 봅니다.

그는 실제로 주소를 옮겼고, 밤 골목을 걸었고, 비 오는 시장과 막차 시간의 역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은 들여다볼 수 없어도 발걸음은 셀 수 있다는 시선입니다. 두 시선은 같은 열흘을 보면서 서로 다른 것을 세었습니다.

낮선 정치인은 무엇으로 이웃이 되는가. 서류는 하루면 됩니다. 선언은 한 줄이면 됩니다. 이웃이 되는 일은 그보다 오래 걸립니다. 이 열흘 동안 그가 내놓은 답은 시간이었습니다. 몇 시에 어느 골목에 서 있었는지로 자신을 증명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금빵 하나, 순찰 한 바퀴, 막차 시간의 인사가 그 증명의 단위였습니다.

이름도 모르면서 안 간다던 수수께끼 같은 첫 해시태그로부터 열흘, 그는 만덕 아저씨라는 호칭 하나를 얻어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지는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만덕의 밤을 다 걸은 사람에게, 이번에는 구포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2 부

만덕의 주민

제3장. 구포시장의 아침

2026년 4월 20일~5월 8일

아침의 구포시장 골목을 한 사람이 걷습니다. 좌판 앞에서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어르신들의 손을 잡고, 어떤 날은 붕어빵 한 개를 나눠 먹습니다. 싸인을 해 달라며 다가서는 주민도 있습니다. 2026년 4월 하순부터 5월 초까지, 부산 북구에서 거의 날마다 되풀이된 아침입니다. 구포시장과 덕천시장, 만덕의 아파트 산책로와 동네 경로당 사이를 그는 좁게 돌았습니다.

만덕럭키 아파트 산책로에서 만덕3동 주민들을 만난 날에는 우리 동네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적었고, 밤에도 북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글이 덕천에서 올라왔습니다. 서울에서 나라 전체를 상대하던 정치인의 하루가 시장 통로의 폭에 맞게 줄어 있었고, 그의 글에는 우리 동네라는 말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습니다.

4월 26일, 그는 낮익은 학생을 다시 만났습니다. 얼마 전 아침에 자기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험에 늦었다는 그 학생입니다. 진짜 시험에 늦은 게 맞느냐고 물었더니 끝내 답을 하지 않고 가 버렸다고 그는 적었습니다. 함께 올린 영상에는 한동훈 본다고 시험도 늦었다는 제목과 셔틀 민원 1번이라는 표시가 달렸습니다. 웃음이 묻어나는 글이었지만 끝맺음은 진지했습니다. "부산 북구 통학 셔틀 꼭 필요합니다."

길에서 받은 하소연 하나가 이렇게 첫 번째 민원이 되었습니다. 답은 아직 없었지만, 문제는 이미 번호를 달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그의 페이스북은 발걸음의 장부처럼 쌓였습니다. 하루 스무 건을 넘기는 날이 흔했고, 4월 22일 하루에만 스물아홉 건이 올라왔으며 서른 건을 넘긴 날도 있었습니다. 덕천시장 안 미용실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구남역 앞에서 빵으로 첫 끼를 먹고, 구포시장 안에서는 진짜 구포국수를 이야기했습니다. 서울을 오가는 길에 문경휴게소에서 떡라면을 먹은 일까지 글이 되었습니다.

같은 사람을 하루에 세 번 만난 날에는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라고 적었습니다. 짧은 영상을 보았다는 어르신들이 길에서 그를 먼저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4월 29일에는 글이 두 건뿐이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오늘도 구포시장에서 시민들을 뵈었습니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4월의 끝에 그가 공유한 기사 제목에는 구포시장에서 동네 형님이 됐다는 표현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4월 24일 그는 우리 동네 초딩 시민이 찍어 준 증명사진이라며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 속 아이는 묻고 또 묻습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여기 살아요, 진짜요, 진짜요. 마라탕을 먹으러 가던 학생들은 이 아저씨를 따라다니느라 걸음이 늦어졌고, 그의 게시글에서 마라탕보이즈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그 아이들과의 이별을 아쉬워하는 태그가 남았습니다.

구포초등학교 학생을 후배님이라 부르며 자신을 68회급 졸업생이라고 적는 장난도 있었습니다. 4월 27일에는 "아저씨는 한동훈 아저씨야"라는 아이 말투의 구호가 게시글에 붙었고, 엄마 아빠를 향해 한동훈 아저씨라고 외치는 아이의 영상도 올라왔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에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한 시대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북구 어린이들을 지키는 믿음직스러운 아저씨가 되겠다는 약속이 뒤따랐습니다.

같은 4월 26일, 그는 북구갑 안에 있는 솔로몬로파크에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법무부 소속 시설입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고보니 법무부장관 그만둔 뒤 법무부 소속 기관은 처음 가본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이 공원을 좋아해 주는 것이 전직 장관으로서 고마웠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한때 그 부처 전체를 지휘하던 사람이 이제는 손님으로 그 마당을 걸었습니다. 글에는 원망도 긴 회고도 없었습니다.

지나온 직함과 지금의 처지 사이 거리를 이만큼 담담하게 짚 문장도 드물 것입니다. 나흘 뒤 그는 솜사탕이라는 낱말과 함께 이 공원을 다시 찾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틀 뒤에는 구포축산물도매시장의 상인들을 찾았습니다. 환영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북구의 명물이 될 만큼 매력적인 곳이라고, 제가 발전시켜 보겠다고 그는 적었습니다. 느낌표가 달린 다짐이었습니다. 상권 이야기는 도매시장만이 아니었습니다. 구포와 덕천의 시장 골목, 미용실과 약국 같은 가게들이 날마다 그의 동선에 있었습니다.

4월 22일 밤에는 낙동강 개발을 주제로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고, 4월 20일에는 북구갑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를 마쳤다고 알렸습니다. 교통과 상권과 돌봄. 골목에서 받는 질문은 날마다 쌓였지만, 그가 내놓는 답은 아직 짧은 한 줄이었습니다. 약속이 문서가 되는 일은 뒤에 올 시간이었습니다.

서류 위에서도 그는 조금씩 복구 사람이 되어 갔습니다. 4월 24일 북부산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더 진짜 복구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그날 적었습니다. 4월 25일에는 만덕2동 청년회의 제104회 어른신 모시는 날 행사에서 서빙을 맡았습니다. 119년 역사의 구포초등학교에 다녀왔고, 시각장애인과 자원봉사자가 나란히 걷는 갈맷길 행사에도 함께 걸었습니다.

복구의 어른들 앞에서 그는 배우는 자세를 앞세웠습니다. 4월 20일 경로당에서는 복구 어머님들 아들처럼 정치하겠다고 적었고, 4월 30일에는 경로잔치와 해병전우회 복구지회를 찾아 응원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남겼습니다. 나들이에 나선 장선종합사회복지관 어른들께 인사한 날도 있었습니다.

5월 2일에는 만덕과 덕천의 경로당에서 인사드리고 배웠다는 글을, 구포의 금수사와 미륵사에서 좋은 말씀을 들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배웠다는 말과 받기만 한다는 말이 이 무렵의 글마다 되풀이됩니다. 조직도 당적도 없이 골목을 도는 사람이 고를 수 있는 말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게시글 끝에는 오랫동안 복구복구한동훈이라는 구호가 도장처럼 찍혀 있었습니다. 4월 27일부터 새 구호가 나타납니다. 복구의 미래, 끝까지 한동훈. 옛 구호가 곧장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두 구호는 한동안 나란히 쓰였고, 날이 갈수록 새 구호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복구를 배신하고 가시면 안 된다는 당부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결국 떠나는 것 아니냐는 물음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새 구호의 끝까지라는 말은 그 물음에 내놓은 답이었을 것입니다. 4월 21일의 글은 "복구가 제 정치의 시작이고 고향입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해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복구를 떠나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한동훈 정치, 그걸로 증명하겠습니다."

5월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오전에도 그는 구포시장에 있었습니다. 시장이 넓어서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쪽을 골라 인사를 다녔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날 허공에 주먹을 뻗는 쉼도우복싱 영상이 올라왔고 비하인드 영상이 뒤따랐습니다. 쉼도우복싱은 상대 없이 혼자 하는 연습입니다. 스스로를 부산말로 오십서이라고 적던 사람이 화면 속에서 혼자 주먹을 내질렀습니다.

그날 밤에는 덕천 젊음의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났고, 마감 무렵 가게 앞 퇴근 인사도 영상으로 남았습니다. 5월 3일은 비 오는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는 그날도 구포시장에서 시민들을 만났고, 구포3동 버스 종점의 홍삼당약국 주변까지 걸음을 넓혔습니다.

이튿날에는 북구파크골프협회장배 대회에서 시민들을 만났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전거를 타고 달려온 선배 정치인 김영우를 화명 생태공원에서 맞이해 함께 생방송을 했습니다. 아저씨, 저희는 사직고 다녀요 하고 말을 걸어오는 학생들의 영상도 이 무렵 올라왔습니다.

같은 기간 그의 계정에는 결이 다른 글도 올라왔습니다. 4월 20일 그는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를 두고, 선거에서 여론조작을 해 감옥에 간 사람이 다시 선거에 나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5월 3일에는 대통령이 자기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게 하면 명백한 탄핵사유라고,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적었습니다. 시장에서 손을 잡던 사람과 탄핵을 말하는 사람이 한 계정 안에 있었습니다.

골목의 인사와 서울을 겨누는 주장은 이 기간 내내 한 화면에서 번갈아 이어졌습니다.

5월 5일의 게시글에는 가게 이름이 그대로 제목이 되었습니다. 오바로크, 모나미, 충청상회. 간판에 적힌 이름을 한 집씩 불러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같은 날 신만덕사거리에서는 차량을 향해 인사했고, 불링장 앞에서 시험을 끝낸 학생들을 만난 흔적도 있습니다. 구포3동에서는 고양이 한 마리가 게시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5월 6일 이른 아침에는 지하철 만덕역에서 출근하고 등교하는 시민들을 만났고, 덕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 식사를 도왔고, 밤에는 그린코아 사거리에서 야간 인사를 했습니다. 5월 7일 아침에는 덕천로터리에서 출근길 차량 인사를, 저녁에는 구포대교 사거리에서 퇴근길 인사를 했습니다. 같은 날 중리 경로당에서는 백한 살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열여덟에 만덕으로 시집와 여든세 해를 만덕에서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깊은 감동을 느꼈다고 그는 적었습니다. 5월 8일에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가 보도되었다는 글과, 만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들께 "늘 받기만 합니다"라며 고마워하는 글이 나란히 올라왔습니다. 국제 통신사의 질문과 복지관 어르신들의 환대가 한 사람의 같은 하루에 있었습니다.

골목의 육성도 게시글에 남았습니다. "한번도 투표한 적 없는데 이번에 꼭 해드릴게요"라는 말을 그는 그대로 옮겨 적었고, 그러면 백 표는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사투리 다짐도 태그로 남겼습니다. 어깨를 쳐 주고 간 어르신에게는 정말 잘하겠다는 답이 돌아갔습니다. 친근한 장면의 반복이 곧 표가 되는지, 그때는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시기의 그는 답을 문서로 묶는 대신 몸의 반복을 먼저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낮을 익히는 일이 먼저고, 약속을 묶는 일은 그다음이라는 순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통학 셔틀은 아직 민원 번호였고, 도매시장의 미래는 아직 느낌표 하나로 서 있었습니다. 낙동강 간담회의 이야기들, 학부모들의 걱정, 아침마다 쌓이는 부탁들. 어느 것도 아직 공약집의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찍히는 눈도장과 아직 종이가 되지 못한 약속. 둘 사이의 거리는 걸음으로 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버이날이 지나고 달력은 5월 중순을 향해 갔습니다. 구포시장의 아침 인사는 다음 날도 그다음 날도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다만 상대 없이 혼자 주먹을 뺏는 연습의 시간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골목에서 같은 표를 바라는 다른 이름들이 이제 곧 도착할 차례였습니다.

제4장. 세 후보, 한 선거구

2026년 5월 9일~5월 20일

2026년 5월 15일,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 등록 창구에 한동훈의 서류가 접수되었습니다. 어느 당의 이름도 얹히지 않은 무소속 후보의 등록이었습니다. 1월 29일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사람이 석 달 반 만에 당 밖에서 선거에 나선 것입니다. 같은 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가 등록했고, 세 사람의 대결이라는 보도가 그날 나왔습니다.

그를 제명한 당이 자기 후보를 냈으니, 한 선거구 안에 보수 후보가 둘이었습니다. 하정우, 박민식, 한동훈이 이사 온 동네라는 제목을 달고 만덕동의 민심을 듣는 기사가 나왔을 만큼, 세 사람은 같은 동네의 새 주민이기도 했습니다. 주소는 겹쳤고, 얻으려는 의식은 하나였습니다. 선거일인 6월 3일은 열아흐레 뒤였습니다.

등록을 마친 날 그는 각오를 적었습니다. 자신이 "민주당 정권의 공소취소 폭주를 박살낼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북구의 잃어버린 20년을 보상받게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후순위, 언제나 읍이었던 우리 북구, 구포, 덕천, 만덕을 대한민국 1순위이자 진짜 갑으로 만들겠습니다."

부산 북갑에서 한동훈이 당선되면 민주당은 진짜 어려워진다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말을 옮기며 맞는 말이라고 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인 선거가 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균형추를 맞추겠다는 말은 그날 기사 제목에 실렸습니다. 서울의 정권과 싸우겠다는 말과 북구의 순번을 끌어올리겠다는 말이 한 글에 나란히 있었습니다. 등록 날에도 거리 인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짧은 글들에는 우비 쌍둥이라는 제목과 네잎클로버, 학교에 가다 말고 횡단보도를 건너온 덕천중 학생의 이야기, 하드라는 낱말이 초등학생과 나란히 적힌 글이 흔적처럼 남았습니다.

등록에 이르는 옛새도 빼곡했습니다. 5월 9일 그는 아내와 함께 어린이날 행사에서 시민들을 뵈었다고 적었고, 같은 날 출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을 전한 기사 제목에는 자신의 승리가 정권 견제와 보수 재건의 출발점이라는 말이 실렸습니다. 이튿날에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열렸고, 그 모습은 영상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개소식장 앞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라는 짧은 글과 함께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제 출정 기자회견에서는 제가 우리 북구 주민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개소식에서는 우리 북구 주민들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같은 날 양산에서 열린 만덕 환희교회 야유회까지 찾아가 목사님과 시민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게시글은 여전히 쏟아졌습니다. 서른 건을 넘긴 날이 잇따랐고, 5월 19일 하루에만 마흔 건이 올라왔습니다. 그 마흔 건의 하루에는 경로당과 당구장과 식당까지 글에 등장했습니다. 파크골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복지관 짜장면 봉사에 참여하고, 유동인구가 적은 구명역까지 찾아가 모든 북구로 찾아뵙겠다고 적었습니다.

구포3동 버스 종점에서는 모든 곳을 가겠다는 다짐을 남겼고, 포천사거리와 고려당삼거리 같은 길목의 아침저녁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새벽 다섯 시 오십 분에 월남전 참전자회 북구지회의 총흔탑 참배 길을 배웅한 날도 있었고, 새벽 생활체육관의 기체조 모임에 들렀으며, 밤에는 구포대교부터 구남역까지 구포2동 일대를 돌았습니다.

만덕역의 아침 출근길 인사와 구포대교 사거리의 퇴근 인사가 하루의 양 끝에 있었고, 토요일 늦은 밤에는 덕천 포레나와 숙등역 주변에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북부미용협회 총회와 북구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에서 인사했고, 덕천성당에서 성모의밤 미사를 드렸다고 적었습니다. 토요일 이른 아침에는 구례로 여행을 떠나는 시민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손편지로 주민들과 인사한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돈과 사람이 모이게 만들겠다는 말이 그 기사 제목에 함께 있었습니다.

사람들과의 장면도 쌓였습니다. 남산정역 앞에서는 멀리서 보고 달려온 시민을 만나 도원결의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버스 기사의 응원을 받은 흔적도 있었고, 잘 지내시는지 찾아가 뵈었다가 주무시고 계셔서 기다렸다 만났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덕천의 카페에 들러서는 따뜻한 마음과 맛있는 빵이 있다며 좋은 정치를 꼭 하겠다고 적었고, "북구 시민들이 보이면 저는 달려갑니다"라는 문장도 남겼습니다.

5월 14일 구남경로당을 나서던 길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구남초등학교 아이들이 '한동훈이다'라며 몰려들었습니다. 릴스, 쇼츠에 자기들 올려달라고도 했습니다." 체험학습을 다녀왔다고 굳이 그에게 알려 주는 아이들의 영상도 올라왔습니다. 아이들은 당을 모릅니다. 알아본 것은 얼굴과 이름입니다. 당의 이름 없이 치르는 선거에서 그가 기댈

것도 결국 그 둘이었을 것입니다.

서울을 겨누는 글도 그대로였습니다. 5월 12일 그는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 검찰위원 완장을 차고 권력자의 청부폭력배 노릇을 합니다"라고 적었고, 특검이 자신의 출국금지 연장을 요청했다는 기사를 옮기며 노골적인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같은 선거구의 두 이름을 향한 글이 더해졌습니다.

5월 11일 그는 부산KBS가 제안한 TV 생방송 토론에 제의받은 즉시 응하겠다고 답했다면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하정우, 박민식 후보에게 부산KBS가 제안한 TV 방송토론에 당당하게 응할 것을 요청합니다." 토론으로 붙자는 제목의 현장 영상도 공유했습니다. 지역 방송의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부산일보와 덕천 젊음의거리를 함께 걷는 동행 인터뷰도 했습니다.

토론 요청은 그 뒤로도 여러 글에서 되풀이되었지만, 그가 옮겨 둔 지역 방송 보도는 후보자 토론회가 5월 28일 한 차례만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투표용지의 기호도 정해졌습니다. 기호는 국회에 의석이 많은 정당의 후보부터 앞 번호를 받고, 무소속 후보는 정당 후보들 뒤 순번으로 밀립니다. 한동훈의 기호는 6번이었습니다. 5월 16일 그는 숫자 6을 오바로크로 박았다는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이튿날 일요일 아침에는 북구 여섯 곳에서 나들이 가는 시민들을 만났으며 글 끝에 6을 힘주어 적었습니다. 순위라는 말 자체는 등록 전부터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을 말한 방송 대담의 제목에 대한민국 1순위로라는 말이 함께 붙었습니다. 등록을 앞뒤로 그 말은 게시글마다 따라붙는 구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쓰던 북구의 미래, 끝까지 한동훈 곁에 새 구호가 늘어 갔습니다. 한동훈이 북구를 1순위로. 이제는 북구가 갑이 된다는 말도 함께 붙어 다녔습니다. 여섯 번째 기호를 받은 무소속 후보가 순위라는 말을 오히려 정면에 세운 것입니다.

언제나 뒷전이였다는 북구와 뒤 순번의 자신을 겹쳐 놓고, 함께 맨 앞으로 가자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덕천 젊음의거리에 서서는, 유동인구가 많기로 부산에서 이름났던 이 거리가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며 북구의 잃어버린 20년을 북구재건으로 극복하겠다고 적었습니다.

두 당의 후보에게는 전국 규모 정당의 조직이 있었습니다. 무소속 후보에게는 없었습니다. 정당의 후보가 당의 이름과 조직, 익숙한 기호와 함께 출발한다면, 무소속 후보는 그 여백을 시민의 손으로 채워야 합니다. 되도록 혼자 다녀야 더 많이 만난다는 짧은 글의 흔적도 이 무렵에 남았습니다. 5월 17일 덕천로터리의 선거사무소에서 북구 시민들로 꾸린 선거대책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그는 이 선거운동을 "우리 북구 사람들이 앞장서고 주인공이 되는 선거운동"이라고 불렀습니다. 뜨겁게 후원해 준 마음을 잊지 않고 북구재건과 보수재건으로 갈겠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행동하는 다수의 역전승. 함께 해 주십시오!"라는 호소도 있었습니다. 훗날 기사는 지지자와 자원봉사자들이 무소속 후보의 조직 열세를 메웠다고 평가했습니다.

보수 후보가 둘이면 보수 표는 나뉠 수 있습니다. 나뉜 표의 이득은 남은 한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산수는 누구나 할 수 있었습니다. 성향이 가까운 후보들이 한 사람으로 힘을 모으는 단일화라는 말이 이 선거를 내내 따라다닌 이유입니다. 그러나 보수 후보 단일화는 끝내 무산되었습니다. 한동훈과 박민식은 사사건건 충돌했다고 기사들은 전했습니다. 한동훈의 호소는 상대 후보가 아니라 시민을 향했습니다.

"이길 수 있는 보수 후보는 한동훈뿐이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부산 북갑 보수진영 후보를 저 한동훈으로 단일화해달라." 후보끼리 표를 합치는 대신 시민들이 표로 단일화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5월 1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단일화를 종속변수라고 불렀습니다. 이길 후보가 누구인지 드러나면 단일화는 저절로 뒤따른다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같은 날 그는 보수 재건이란 보수가 다시 말할 자격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불법 계엄을 끝까지 옹호했던 사람들이 공소취소 문제를 말하면 국민들이 설득되겠느냐고 물었고, 누구보다 먼저 계엄에 반대했던 자신에게 그 자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당과 당의 대결이라면 공천에서 끝났을 교통정리가, 이 선거구에서는 투표함 앞의 유권자에게 넘어와 있었습니다.

그 대치 속에서도 옛 당 쪽 이름들이 그의 게시글에 스쳤습니다. 후보 등록 날의 짧은 글 하나에는 배현진이라는 이름 석 자만 남았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다녀간 흔적으로 보입니다. 5월 19일에는 배현진, 고동진, 박정훈이라는 이름이 덕천 젊음의거리와 나란히 적혔습니다. 당의 공천장은 박민식 후보에게 갔지만, 보수 정치인 모두의 발걸음이

공천장을 따라간 것은 아니었던 듯합니다. 표보다 먼저 발걸음이 갈리고 있었습니다.

5월 20일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그는 비 오는 수요일의 덕천로터리와 덕천지하상가를 돌았고, 낙동강에서 조업하는 구포 어촌계 시민들이 새로운 북구를 간절히 바라고 있더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구포시장 뒷골목에서 89년 된 미싱을 돌리는 할머니를 만난 이야기도 적었습니다. 밤에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방금 비오는 늦은 저녁 남산정 교차로에서 시민들께 인사드렸습니다. 북구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민심 앞에 겸손하게 정성을 다하겠다는 다짐도 그날 함께 올라왔습니다. 전날인 5월 19일에는 캠프 사무소에서 첫 공약을 직접 설명하겠다는 예고가 있었고, 이날은 뉴북구 플랜이라는 이름이 내걸렸습니다. 골목의 부탁들이 문서가 될 차례였습니다. 사흘 전의 글은 21일 저녁 구포시장 씬지공원에서 기호 6번의 출정식을 열고 하얀 물결로 공원을 덮겠다고 예고해 두었습니다.

자정이 지나면 열사흘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투표용지에는 이제 세 이름이 옵니다. 두 이름 옆에는 당의 이름이 있고, 한 이름 옆에는 무소속 세 글자가 있습니다. 북구의 유권자는 당을 찍을 것인가, 사람을 찍을 것인가. 그 답을 들으러 갈 열사흘의 골목이 자정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3 부

6월 3일 밤

제5장. 골목의 열사흘

2026년 5월 21일~6월 1일

덕천역에 막차가 들어왔습니다. 하루를 다 쓴 사람들이 역을 빠져나왔습니다. 2026년 5월 21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날, 한동훈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막차로 귀가하는 고단한 시민들과 만나면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고 그는 페이스북에 적었습니다. 북구 시민들께 정성을 다하겠다는 말이 그 뒤에 붙었습니다. 같은 날 올라온 글에는 다짐이 한 줄로 담겼습니다. "공식운동 첫날부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투표일인 6월 3일 전날까지, 공식 선거운동에 허락된 시간은 열사흘이었습니다.

첫날 낮에는 출정식이 열렸습니다. 그는 이날 자신이 살아온 시간을 네 문장으로 눌러 담은 글을 올렸습니다. "1원도 안받고 살았습니다. 강자에 강하고 약자에 약하게 살았습니다. 거짓말 안하고 살았습니다. 약속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북구 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기회를 꼭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당의 이름 없이 서는 후보가 내밀 수 있는 것은 결국 살아온 이력과 앞으로의 약속뿐이었을 것입니다.

다음 날에는 유세차가 골목을 돌았습니다. 유세차를 보고 달려온 초등학생이 있었다고, 그는 5월 22일 짧은 글로 남겼습니다. 며칠 뒤에는 멀리서 사진을 찍어도 되는지 허락을 구했다는 초등학생 둘의 이야기도 올라왔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래도 골목에서 후보를 먼저 알아보고 달려오는 쪽은 자주 아이들이었습니다. 닷새 뒤 그는 "저는 아이들에게 만만해 보이는 사람이고 싶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5월 22일 밤 계정에 남은 글은 짧았습니다. "내일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소속 후보의 열사흘은 정당 후보의 열사흘과 다르게 생겼습니다. 당의 조직이 있는 후보라면 이 기간을 당의 이름과 당의 사람들로 채웁니다. 한동훈에게는 둘 다 없었습니다. 연합뉴스는 뒷날 그가 지지자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으로 조직의 열세를 메웠다고 적었습니다. 그의 계정도 첫날부터 "정말 열심히 하시는 자원봉사자분과 인사했습니다"라는 글이 남아 있습니다. 조직 밖에서 오는 손길도 있었습니다.

첫날 출정식에서는 보수와 중도의 시민단체들을 아우르는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범사련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범사련 의장이 원래 자신을 싫어하고 자신의 핵심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분인데도 이 골목까지 내려왔다고 소개했습니다. 5월 23일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이 캠프 사무소에서 지지를 선언했고, 그는 부산 북구에서 YS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당이 해 줄 일을 사람들이 나누어 들었고, 나머지는 후보의 몸이 채워야 했을 것입니다.

그 열기는 하루치 글의 숫자로도 남았습니다. 적은 날에 스물네 건, 많은 날에는 일흔여덟 건이 그의 계정에 올라왔습니다. 5월 25일이 일흔다섯 건, 이틀 뒤인 5월 27일이 일흔여덟 건으로 꼭대기였습니다. 유세 예고, 골목에서 찍은 사진, 방금 지나온 동네와 아파트 이름. 글은 후보의 걸음을 거의 실시간으로 따라갔습니다. 처음 글마다 붙던 구호는 "북구의 미래, 끝까지 한동훈"이었습니다.

5월 26일부터 "북구 모든 곳에 한동훈"과 "골목골목 한동훈"이 더해졌습니다. 구호대로 그는 덕천역과 남산정역과 구남역 부근에서 인사했고, 5월 24일 부처님 오신 날에는 운수사와 삼광사에서 시민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글머리에는 "방금", "지금", "한 시간 전" 같은 말이 자주 붙었습니다. 방금 럭키3차 앞, 지금 구포1동 당숲 인근, 두 시간 전 만덕2동 행정복지센터 앞.

그는 "달려오시면 바로 내려갑니다"라고 적었고, 창문과 베란다와 옥상에서 손을 흔드는 주민들에게 "창문 인사해주시면 참 고맙습니다", "베란다 응원 감사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만덕 그린코아아파트 앞에서는 너무 많은 주민이 내려와서 놀랐다는 글을 올렸고, 달리는 차에서 사인해 달라는 시민의 이야기도 남겼습니다. 5월 27일부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끝까지 북구와 함께"라는 구호도 글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유세의 도구도 조직 대신 몸과 화면이었습니다. 오후 5시 덕천 젊음의거리 다이소 앞 유세를 예고하면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하겠다고 알렸고, 인스타그램 팔팔을 청하는 영상을 올렸고, 밤에는 차량 인사를 돌았습니다. 덕천역과 구포대교에서는 저녁 인사가 이어졌고, 예고 없이 거리로 나가 시민들을 만난 날도 있었습니다. 정해진 동선을 당의 일정표가 아니라 후보의 두 발이 만들었습니다.

일흔다섯 건이 올라온 5월 25일 하루만 해도 동선이 북구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시민들이 알아보고 다가오자 유세차에서 내렸다고 그는 적었습니다. 덕천로타리에서 내려 시민들을 만났고, 구남역 부근을 돌았고, 구남시장 대성아파트 인근과 럭키아파트와 디이스트 동문상가 앞을 지나, 만덕2동 제일 위에 있는 한신아파트 근처까지 올라갔습니다. 오후 5시에는 구포 고려당삼거리 집중유세가 잡혀 있었습니다.

아내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뵈었다는 글도 이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날, 만덕3동 상가주택 밀집지역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는 화재 진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불이 잡힌 뒤에 현장에 갔다고 적었습니다. 인명피해가 없어 정말 다행이라는 말, 많이 놀랐을 인근 주민들을 걱정하는 말, 늦은 시간까지 수고한 소방관들에게 전하는 감사가 이어졌습니다. 표를 부탁하며 걷던 골목과 불이 난 골목은 같은 골목이었습니다.

약수와 구호만의 열사흘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선거 기간에 북구 공약을 세 방향으로 묶어 발표했습니다. 사람과 돈이 모이는 도시. 낙동강에 K-북합 아레나를 짓고, 낙동강 일대를 문화와 상권과 여가가 어우러진 골든벨트로 가꾸고, 구포역과 낙동강 생태공원을 잇는 생태 하늘길을 놓고, 금빛노을교 통로를 구포시장까지 연결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일상이 행복한 명품 도시.

백양산을 뚫어 구포와 초읍을 잇는 구포터널, 구포대교 가변차선제와 보조 교량, 구포역 KTX 증편, 경부선 철도 지하화가 담겼습니다. 따뜻하고 더욱 든든한 도시. 아이부터 청년, 장애인 가족,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를 따라가는 복지였습니다. 사람과 돈이 모여야 경기가 살아나고 상권이 부활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그는 적었습니다.

골목 밖의 소식에 노래를 멈춘 날도 있었습니다. 5월 26일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공사 도중 붕괴 사고가 나서 인명 피해가 났습니다. 그는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글을 올렸고, 부상자의 쾌유와 소방 당국의 안전을 기원했습니다. 그의 유세 현장에서 선거송이 꺼졌다는 보도가 뒤따랐습니다.

일흔여덟 건이 올라온 5월 27일, 그의 계정에 옮겨진 인터뷰에는 이런 문답이 있었습니다. "저는 질 자유가 없고, 이겨야 할 책임만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 날에는 한 줄짜리 글이 올라왔습니다. "늦은 저녁 먹고 또 시민들 뵈러 갑니다." 낮의 유세와 밤의 골목 사이에 저녁밥이 겨우 끼어들었습니다. 무소속 후보의 하루는 남들이 저녁상을 물릴 시간에 한 번 더 시작되었습니다. 질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쉼 자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5월 29일 사전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만덕2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한 달 반 전 전입신고서를 냈던 바로 그 건물이었습니다. 공약이 골목의 얼굴을 만난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그는 구포3동이 섬처럼 고립되어 있다며 구포와 초읍을 잇는 터널로 완전히 바꾸겠다고 적었습니다.

한 달 전 그 터널을 꼭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던 어머니를 사전투표 날 다시 만났는데, 공약해 준 것을 고마워하셔서 오히려 자신이 더 고맙다고 했습니다. 이날도 그는 북구 구석구석을 다니며 인사했다고 적었고, 그 사이에 "달이 보이네요"라는 짧은 글이 끼어 있었습니다. 골목을 건다 올라다본 하늘이었을 것입니다. 같은 날 밤 11시 10분에 올라온 글은 "북구의 잃어버린 20년"이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몇몇 동네 주민들이 전재수, 박민식 의원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며, 자신이 당선되어 챙기겠다고 적었습니다. 두 사람을 겨누는 비판은 그의 주장입니다. 도시가스 이야기는 그가 골목에서 들었다는 주민들의 하소연이었고, 잃어버린 20년은 그가 유세 기간 내내 되풀이해 꺼낸 말이었습니다.

공방도 있었습니다. 선거 기간에 그를 향해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하는 주장이 나왔고, 그는 "저질 흑색선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의혹은 의혹대로, 반박은 반박대로 기사 제목이 되었습니다. 주장과 주장이 맞서는 동안에도 골목 인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5월 30일 덕천 젊음의거리에서 유세한 뒤 그는 적었습니다. "바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투표로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날 유세에서 그는 자신을 반대하는 정치인과는 싸워도 자신을 반대하는 시민과는 싸우지 않는 것이 철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강하게 비난하던 한 시민이 이날 "그래도 네가 정말 열심히 한다, 너를 찍겠다"고 말해 주었다는 이야기도 유세에서 전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다시 상처를 봉합해야 한다며, 자신이 봉합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같은 날 구남역 앞 상가에서는 중학생들이 자기가 왔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며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만나면 찍어오랬어요"라고 말한 6학년 학생의 이야기도 이날 남았습니다. 아이의 말 뒤에는 저녁 밥상에서 이 선거를 이야기하는 집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은 여섯 번째, 맨 아래 칸에 있었습니다.

기호 6번. 그는 자기 칸의 위치부터 알려야 하는 후보였습니다.

5월의 마지막 날에도 그는 구포시장에 있었습니다. 이날 계정에 올라온 글은 스물네 건, 골목을 돈 열하루 가운데 눈에 띄게 적은 숫자였습니다. 소리치던 계정이 조금씩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으로는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투표로만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전날 유세의 말이 이날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달력이 6월로 넘어갔습니다. 막차 인사로 열린 골목의 시간이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유세차를 보고 달려온 아이, 창문과 베란다에서 나온 손, 불이 난 골목의 밤, 밤 11시에 올라온 도시가스 이야기가 그 시간을 지나갔습니다. 이 골목의 표는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유세차의 소리인가, 세 방향의 공약인가, 골목에서 마주 잡은 손인가, 저녁 밥상의 대화인가. 답을 미리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답은 이틀 뒤의 밤, 개표소의 불빛 아래에서 나올 것이었습니다.

제6장. 새벽의 1,392표

2026년 6월 2일~6월 4일

"나라를 바꿀 수 있도록, 투표해주시요." 2026년 6월 3일, 투표일의 한동훈 페이스북에 올라온 한 줄입니다. 유세차와 확성기의 시간은 전날 밤으로 끝났고, 후보에게 남은 일은 부탁뿐이었습니다. 그는 이날 하루 마흔두 건의 글을 올렸습니다. 거의가 몇 줄짜리 호소였습니다. "지금 꼭 투표해 주십시오. 바람만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투표로 바꿀 수 있습니다."

"투표해주시요"라는 일곱 글자에 해시태그만 붙인 글도 있었습니다. 같은 부탁이 아침에도 낮에도 조금씩 모양을 바꾸어 되풀이되었습니다. 말투는 담담했지만 횃수는 담담하지 않았습니다. 그 횃수가 후보의 심정을 대신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아침 7시 29분의 글은 전날 밤을 담고 있었습니다. "어제 밤 최종유세입니다. 끝까지 구포 덕천 만덕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꼭 투표해주시요. 바람만으로는 바꿀 수 없고, 오직 투표로만 바꿀 수 있습니다." 쉼 장이 넘는 사진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향한 글도 있었습니다. "마지막날 밤 12시까지 인적 끊겨가는 거리에서 120도 인사를 계속하시던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6월 2일, 선거운동이 허용된 마지막 밤의 일입니다. 지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리에서 하는 인사는 표가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는 인사입니다. 그 인사를 자정까지 계속한 사람들이 있었고, 당의 조직 없이 나선 후보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조직을 대신하는 힘이었습니다.

바람이라는 말을 그는 여러 번 썼습니다. 지지한다는 말, 잘한다는 박수, 유세장에 몰려든 사람들. 그런 것이 바람입니다. 바람은 투표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것은 도장이 찍힌 종이 한 장뿐입니다. 그래서 투표일의 호소는 절박했습니다. 오후 3시 24분에는 동네 이름을 하나씩 불렀습니다. "만덕, 덕천, 구포 시민 여러분. 북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한동훈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같은 날 그는 최악의 저질정치라는 표현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폭주를 막기 위해 자신에게 투표해 달라고도 적었습니다. 동네 세 곳의 이름과 나라 전체를 겨누는 말이 한 계정 안에 나란히 있었습니다.

이날 전국은 지방선거를 치렀습니다. 유권자들은 시장을 뽑고, 구청장을 뽑고, 교육감과 의원들까지 뽑는 투표용지를 여러 장씩 받았습니다. 부산 북구갑의 유권자에게는 한 장이 더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용지였습니다. 그 용지에서 한동훈의 기호는

6번이었습니다. 후보가 셋인데 번호가 6번인 것은 앞 번호가 의석을 가진 정당들에 먼저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의 게시글에는 기호6번, 무소속북구주민이라는 해시태그가 붙어 있었습니다. 구포와 덕천과 만덕, 그가 봄부터 걸어 다닌 동네들이 모두 이 선거구 안에 있습니다. 전임 의원이 부산시장 선거에 나서면서 비운 의석을 채우는 선거였고, 언론은 이곳을 격전지로 꼽았습니다. 후보는 셋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국민의힘 박민식, 무소속 한동훈. 보수 후보 단일화는 끝내 무산된 채였습니다.

1월 29일, 그는 국민의힘에서 제명되었습니다. 4월 14일, 만덕2동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신고서를 냈습니다. 5월 15일, 무소속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열사흘 동안은 하루 수십 건의 글을 올리며 골목을 걸었습니다. 제명의 겨울에서 개표의 초여름까지, 넉 달이 조금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의 이름 없이 끌고 온 승부의 마지막 순서가 이 밤의 개표였습니다.

이 밤이 정하는 것은 의석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당 밖에서도 정치가 이어지는지, 사람 하나가 정당의 조직을 이길 수 있는지를 가리는 밤이기도 했습니다. 투표함이 닫히자 부탁의 시간도 끝났습니다. 이제 어떤 말도 표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남은 것은 투표함 속의 종이와, 숫자가 바뀌는 개표 방송 화면이었습니다.

개표는 사전투표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전투표는 투표일보다 먼저 표를 던질 수 있게 한 제도이니, 이 상자들 속의 표는 이미 며칠 전에 던져진 마음이었습니다. 화면 맨 위에 하정우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차이는 10퍼센트포인트가 넘었습니다. 두 자릿수의 열세였습니다. 웬만한 개표라면 승부가 기울었다고 읽힐 숫자였습니다. 물론 개표 초반의 숫자는 전체의 일부만 말해 줍니다. 그런 계산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눈앞의 숫자는 눈앞의 숫자입니다. 바람만으로는 바꿀 수 없다던 그의 말이 거꾸로 그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그 화면을 바라보던 마음은 본인만 알 것입니다.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 열리지 않은 본투표함을 생각하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저녁에 시작된 개표는 밤을 지나 새벽으로 넘어갔습니다. 개표율이 오를수록 아직 열리지 않은 표는 줄어듭니다. 남은 표가 줄어들수록 판을 뒤집는 데 필요한 쏠림은 커집니다. 뒤지고 있는 후보에게 시간은 그렇게 잔인하게 흐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밤의 숫자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격차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자릿수가 한 자릿수로 내려왔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화면 아래의 개표율 숫자는 올라갔고, 다툼은 앞의 두 이름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줄어드는 걸음은 더뎠습니다. 자정이 지나 날씨가 6월 4일로 바뀌었습니다. 부탁하던 날은 가고, 결과를 기다리는 날이 새로 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의 이름은 아직 아래에 있었습니다.

개표소 밖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은 화면의 숫자뿐이었고, 그 숫자가 새로 뜰 때마다 차이는 조금 더 좁아졌고, 순서는 그대로였습니다. 같은 시각, 같은 숫자를 보며 정반대의 마음이 되는 사람들이 이 선거구 안에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숫자를 기다리는 쪽의 밤은 유난히 길었을 것입니다.

오전 1시 52분께였습니다. 두 이름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차이는 0.8퍼센트포인트, 578표였습니다. 투표한 백 명 가운데 한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차이였습니다. 개표가 시작된 뒤 처음으로 한동훈의 이름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당선 소식을 전한 기사는 이 순간을 골든 크로스라고 적었습니다. 뒤지던 쪽의 선이 앞서던 쪽의 선을 넘어서는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역전에서 판정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전 2시께, 당선 판정이 나왔습니다. 남은 표를 다 세어도 순서가 다시 뒤집히지 않는다는 판정이었습니다. 판정이 나온 뒤에도 세는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상자까지 열어야 개표는 끝납니다.

날씨가 바뀐 뒤 그의 계정은 내내 조용했습니다. 전날 그렇게 많은 부탁을 쏟아 낸 계정에, 역전의 새벽에도 판정의 순간에도 새 글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를 잡을 일도, 도장을 찍어 달라 부탁할 일도 더는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초조함이었을 수도 있고 담담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었든 화면의 숫자를 지켜보는 일 말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최종 집계는 이렇게 확정되었습니다. 한동훈 35,056표, 42.96퍼센트였습니다. 하정우 33,664표, 41.26퍼센트였습니다. 박민식 12,866표, 15.76퍼센트였습니다. 세 사람이 받은 표를 모두 더하면 8만이 넘었습니다. 하정우와의 차이는 1,392표, 1.70퍼센트포인트였습니다. 역전의 순간 578표였던 차이는 개표가 끝났을 때 그만큼

벌어져 있었습니다.

밤 시간의 열세를 기억하면 1.70퍼센트포인트는 밤새 메워 넘어선 거리이기도 했습니다. 두 자릿수 열세로 시작해, 한 자릿수 추격을 지나, 새벽의 역전으로 끝난 밤이었습니다.

당선이 확정된 뒤 한동훈은 말했습니다. "역사적 승리로 부산 복구를 발전시키고, 보수를 재건할 수 있도록 밀어준 위대한 부산 복구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게 맡겨주신 임무를 부산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반드시 완수해내겠다." 감사는 복구 시민을 향했고, 다짐은 임무의 완수를 향했습니다. 선거 내내 보수 재건을 말해 온 사람답게 감사의 말에도 재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 당선은 복구의 일이면서 복구 너머의 일이기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정우는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열과 성으로 저를 지지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당선 되신 한 후보께 축하 말씀을 전한다." 짧은 세 문장이었고, 원망하는 말은 없었습니다. 이긴 사람은 역사적 승리라는 말을 골랐고, 진 사람은 겸허라는 말을 골랐습니다.

숫자는 두 사람의 말보다 조용했습니다. 그를 지지한 표는 42.96퍼센트였습니다. 투표한 백 명 가운데 마흔세 명꼴입니다. 나머지 쉰일곱 명꼴은 다른 이름 옆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복구가 한동훈을 골랐다는 말도 맞고, 복구의 절반 넘는 표가 그를 고르지 않았다는 말도 맞습니다. 두 문장은 같은 밤에 같이 참이었습니다. 박민식의 득표가 보여 주듯 보수 성향의 표는 끝까지 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나뉘고도 이겼다는 풀이와, 나뉘었기 때문에 이토록 아슬아슬했다는 풀이는 둘 다 성립해 보입니다. 조직의 열세를 자원봉사자들이 메웠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어느 한 가지 이유만으로 설명이 끝나는 밤이 아니었습니다. 이긴 표도 진 표도 같은 투표함에서 나왔고, 개표가 끝난 뒤에는 같은 동네의 아침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분명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1,392표는 압승의 숫자가 아닙니다. 이긴 사람이 마음껏 쓰라고 내준 백지도 아닙니다. 절반에 못 미치는 지지였고, 백 표 가운데 두 표가 되지 않는 차이였습니다. 지켜보겠다는 조건이 붙은, 명령에 가까운 숫자로 보입니다. 자신을 찍지 않은 절반을 위해서도 일하라는 명령이고, 골목에서 한 약속, 복구를 1순위로 만들겠다던 그 약속을 실제로 해내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는 마감 날짜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지켰는지 어겼는지는 임기 내내,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 확인될 일이었습니다.

6월 4일 오후 4시 17분, 그의 계정에 새 글이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국회 본회의 참석을 위해 서울 국회에 갑니다." 함께 붙은 사진 설명은 오후 1시 40분, 국회 본관 정문 계단이었습니다. 당선 판정으로부터 열두 시간이 지나기 전에 그는 국회 계단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그가 공개한 첫 소식이자 마지막 소식이 이 국회행이었습니다.

만덕의 새벽과 여의도의 오후 사이는 한나절이 되지 않았고, 당선의 밤을 즐길 겨를은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1,392표가 무엇을 명령하는지, 답을 내놓는 시간은 그렇게 당선 그날 오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 4 부

국회로 돌아온 날들

제7장. 돌아온 자리

2026년 6월 4일~6월 12일

2026년 6월 5일 금요일, 무소속 의원 한동훈이 국회 본청에 처음 등원했습니다. 연합뉴스와 동아일보가 그 걸음을 보도로 남겼습니다. 하루 전인 6월 4일 오후, 그의 페이스북에는 "오후 1시 40분, 국회 본관 정문 계단"이라는 설명이 붙은 사진과 함께 한 문장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오늘은 국회 본회의 참석을 위해 서울 국회에 갑니다."

1,392표 차이의 개표가 새벽에야 끝난 바로 그날, 그는 벌써 국회 계단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당선이 확정되고 그가 처음 알린 행선지는 북구의 골목이 아니라 서울의 국회였습니다. 밤을 새운 사람의 걸음이었을 것입니다. 축하를 받는 일보다 일하러 가는 일이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등원은 의원이 국회에 나가 일을 시작하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 길에 나란히 걸어 줄 같은 당의 동료는 없었습니다. 무소속이란 그런 신분입니다. 대신 그는 이날 북구 시민들에게 감사 글을 올렸습니다. "계속 찾아뵙고 감사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회 첫 등원 때문에 서울에 왔다가 내일 북구로 다시 갑니다." 새 생활의 틀이 이 두 문장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의원의 일을 하고, 부산 북구로 돌아가 주민들께 인사를 드리는 두 도시의 나날입니다.

국회는 그에게 낯선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국무위원으로 드나들었고, 여당 대표 시절에는 당을 이끄는 사람으로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답하던 사람이 이제 묻고 표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그가 합류한 국회는 다른 의원들이 이미 임기를 절반 가까이 보낸 국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29일, 국민의힘은 한때 자신들의 대표였던 그를 제명했습니다. 넉 달 남짓 만에 그는 그 당의 이름 없이, 의원 한 사람의 이름으로 같은 건물에 돌아왔습니다. 건물은 그대로였고, 신분은 전부 달라져 있었습니다.

본청 안에는 그를 제명한 당의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같은 회의장에서 표결하고 같은 복도에서 마주칠 사람들입니다. 그 겹으로 걸어 들어가는 마음이 홀가분하기만 했을 리는 없습니다. 제명은 그가 청한 일이 아니었지만, 이번의 귀환은 그가 표로 만들어 낸 일이었습니다. 반가움과 서먹함, 자부심과 외로움이 한 걸음 안에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복당 절차를 밟고 당의 이름으로 당당히 돌아오는 귀환을 그려 본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의 귀환은 그보다 외로운 모양이었습니다. 당이 열어 준 문이 아니라 유권자가 열어 준 문으로 들어왔고, 본회의장 어디에 앉든 그 의석은 당이 아니라 복구가 만들어 준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복구 시민들을 향한 글만은 담담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과 다시 가겠다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어제의 여의도가 아니라 내일의 복구에 시선을 두는 것이 그가 고른 마음가짐이었을 것입니다.

같은 날 페이스북에는 결이 다른 사진도 하나 올라왔습니다. "채널에이 인터뷰를 보는 북구곰." 곰 마스코트 북구곰이 그의 방송 인터뷰를 지켜보는 사진입니다. 당선이 되었어도 이 마스코트는 은퇴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본관 계단과 곰 마스코트가 한 계정에 나란히 걸린 하루였고, 서울의 긴장 옆에는 복구의 익살이 함께 있었습니다.

토요일인 6월 6일은 일흔한 번째 현충일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그는 말대로 부산에 내려와, 유엔기념공원에서 낙동강 전선을 지켜낸 영웅들을 기렸다고 적었습니다. 현충일 글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국가의 품격은 그분들을 빠짐없이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이 진영과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추모되어서는 안 된다는 글이었습니다.

예우의 사각지대가 아직 남아 있다며, 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글에는 새 일터의 방 번호가 붙은 약속이 있었습니다. "의원회관 1022호의 문을 국가유공자 여러분과 그 가족분들께 항상 열어두겠습니다." 의원이 되어 처음 맞은 현충일에 그가 내놓은 약속은, 문을 열어 두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일요일 이른 새벽에는 등산에 나선 시민들에게 당선 인사를 드렸다고 적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부터 시작한 인사였습니다. 화명생태공원의 신만덕 축구회와 배드민턴 동호회를 찾았고, 새마을운동 제창 56주년을 기념하는 어울림 한마당에서는 부산 시민들에게 인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여러 곳을 도는 일정이었습니다.

월요일에는 구포축산물도매시장을 찾았다가 "참 반겨주셨습니다"라고 적었고, 구포대교사거리와 남산정역 교차로에도 썼습니다. 덕천로타리에서는 자원봉사자 한 분이 아직도 감사 인사를 계속하고 있어 함께 인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화요일에는 대한노인회

북구지회에서 어르신들께 큰절을 올렸고, 북구 보훈회관은 이틀에 걸쳐 찾았습니다. 그린코아 사거리에도 썼고, 수요일에는 신만덕 농협사거리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페이스북에는 감사하다는 말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왔습니다. 선거 때 걷던 길과 크게 다르지 않은 동선입니다. 다만 이제는 표를 부탁하는 걸음이 아니라, 표에 감사하는 걸음이었습니다.

같은 한 주, 같은 페이스북에는 온도가 전혀 다른 글이 번갈아 올라왔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자기 사건의 공소취소를 바란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적었습니다. 공소취소는 검찰이 낸 기소를 거두어들여 재판을 멈추는 절차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탄핵에 나서겠다고, 자신이 국민과 함께 앞장서겠다고 했습니다. "계엄이 탄핵이면 공소취소도 탄핵입니다."

당선 며칠 만에 그의 말투는 정부와 정면으로 맞서던 예전 그대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교차로의 감사 인사와 대통령을 향한 경고문이 몇 시간 간격으로 한 화면을 지나갔습니다. 같은 손이 두 글을 다 썼습니다. 한 사람의 계정이라고 믿기 어려운 낙차였습니다.

6월 11일 목요일에는 헌정회 원로들을 찾아 인사했습니다. 헌정회는 국회의원을 지낸 원로들의 모임입니다. 국회에 갓 돌아온 의원이 이 건물을 오래전에 거쳐 간 선배들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헌정회 원로 선배님들의 말씀, 명심하고 좋은 정치, 보수재건 꼭 해내겠습니다."

부산 지역 방송 KNN이 올린 영상의 제목에는 원로들의 극찬이 쏟아지자 미소를 숨기지 못했다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극찬이라는 말도 미소라는 말도 그가 아니라 방송이 고른 말이었습니다.

인터뷰도 줄을 이었습니다. 그는 6월 11일자 요미우리신문 기사의 우리말 전문을 페이스북에 옮겨 실었습니다. 일본 신문은 서울의 오세훈과 부산의 한동훈을 "두 명의 훈"으로 묶어 부르며, 빈사 상태에 놓였던 보수가 재건의 발판을 얻었다고 썼습니다. 이 기사를 옮겨 실은 것은 그 자신이었습니다. 바깥의 시선이 자신의 승리를 어떻게 읽는지 보여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모하다는 평가를 들었던 출마가 모금과 자원봉사에 기댄 밑바닥 선거로 뒤집혔다는 회고도 실려 있었습니다. 기사에는 제명이 결정된 1월 29일의 기자회견에서 그가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겼다는 문장도 있었습니다. 그 말대로 그는 돌아왔습니다. 다만 어디로 돌아왔는지가 남은 문제였습니다. 국회로는 돌아왔지만, 당으로는 아직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 그가 공유한 조선일보 인터뷰의 제목은 그 물음과 답을 나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국힘 복당? 민심의 시계에 맞출 것." 그를 제명한 당으로 돌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은 어디를 가든 그를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는 답을 서두르지 않고, 민심의 시계라는 말 뒤에 미뤄 두었습니다. 거절도 승낙도 아닌 답이었습니다. 시계 바늘을 쥔 쪽은 자신이 아니라 유권자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같은 6월 11일, 페이스북에는 전혀 다른 글이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자신이 출국금지 상태라는 사실을 밝힌 글입니다. 출국금지는 수사 등을 이유로 사람이 나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조치입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민주당 정치특검이 아무 근거 없이 달랑 친민주당 단체 무고성 고발장 하나를 근거로 저를 출국금지 했다가 아무것도 안한 채 출국금지를 연장했는데, 내일 6월 12일이 연장된 출국금지 만료일입니다."

부산 북구갑 선거에서 흠집을 내려는 시도였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고, 그동안 연락조차 온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연장하는지 보겠습니다. 연장 안해도, 연장 해도 코미디입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출국금지는 선거 기간에 시작되어 당선 뒤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표를 얻으러 다니던 동안에도, 표를 받은 뒤에도 나라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두 그의 게시물에 담긴 그의 주장입니다.

출국금지의 사유에 대한 특검 쪽의 설명은 그 글에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이튿날인 6월 12일 아침, 그가 공유한 연합뉴스TV 대담의 제목은 그를 격전지에서 생환한 국회의원이라고 불렀고, 그 제목 끝에도 복당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대담에서 공소취소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이야기를 했다고 적었습니다. 오후에는 특검이 출국금지를 다시 연장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정치특검이 '유치한 기싸움'하고 있습니다." 물음도 던졌습니다.

"한동훈이 세번이나 출국금지 당해야 할 사유가 뭘니까."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동훈 낙선시키려 출국금지해놓고 선거 끝나서 그냥 접으려니 창피합니다." 원로들의 극찬과 특검의 연장 통보 사이는 하루였습니다. 당선의 아침과 수사의 그림자가 같은 주에 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북구를 향한 글도 잊지 않았습니다. "북구 만덕, 구포, 덕천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덕과 구포와 덕천은 그가 두 달 넘게 걸어 다닌 동네들의 이름입니다. 특검을 향한 물음과 시민을 향한 감사가 몇 시간 사이에 한 계정을 지나갔습니다. 국회의 싸움이 어떻게 번지든 인사만은 거르지 않겠다는 듯이, 감사의 글은 이 주간의 처음과 끝에 어김없이 있었습니다. 그 두 글 사이가 무소속 의원의 하루였습니다.

돌아온 국회에서 무소속 의원의 자리는 어디인가. 당의 회의실도, 당론이라는 울타리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있는 것은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몸, 그리고 그 몸을 국회까지 보낸 북구의 투표지들이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 한 장의 무게를 새삼 따져 물어야 하는 날들이, 등원 다음 주의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8장. 투표지 한 장의 무게

2026년 6월 13일~6월 22일

"새로 만든 명함입니다." 2026년 6월 18일, 한동훈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디서든 구포, 덕천, 만덕을 한번이라도 더 말해서 알리기 위해 구포, 덕천, 만덕을 넣었습니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명함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건네는 종이 한 장입니다. 이름과 직함과 연락처만 적어도 명함 노릇은 합니다. 그 좁은 종이에 초선 의원은 동네 이름 셋을 더 새겼습니다.

서울의 회의실에서든 국회의 복도에서든, 명함을 받아 든 사람이 구포와 덕천과 만덕이라는 이름을 한 번은 읽고 한 번은 듣게 하려는 궁리입니다. 석 달 전만 해도 그에게 낯설었을 동네 이름들이 이제 그의 손끝에서 먼저 나가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의 명함은 멀리 갑니다. 장관의 책상에도, 기자의 수첩 곁에도, 처음 만난 공무원의 주머니에도 닿습니다.

그 손들마다 부산 북구의 세 동네가 함께 건네지는 것입니다. 당선 뒤에도 그의 글에는 북구의 미래, 끝까지 한동훈이라는 문구가 붙어 다녔습니다. 명함은 그 다짐을 종이 위에 올린 물건이었습니다.

명함 글이 올라오기 닷새 전인 6월 13일 토요일, 그는 부산에 있었습니다. 이날 하루에만 열 건의 글이 계정에 쌓였습니다. 새벽에는 자신이 나온 방송 대담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강력한 0.5선' 한동훈 의원에게 듣는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보궐선거로 당선되어 4년 임기의 절반을 일하게 된 의원을 0.5선이라 부르는데, 그 앞에 강력하다는 수식이 붙은 것입니다. 날이 밝자 부산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도개공아파트 풀깎기 약속, 진행 중입니다." 선거 때 주민들과 한 약속이 당선 뒤에도 진행되고 있다는 다섯 어절의 보고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덕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국수봉사를 했다는 글이 뒤따랐고, 북구 단오행사에서 떡메를 쳤다는 글, 산악회 시민들께 인사했다는 글, 새벽에 삼사순례를 떠나는 운수사 시민들을 뵈었다는 글이 이어졌습니다. 밤에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화명생태공원의 나이트마켓으로 갔습니다.

낙동강변이라 참 시원하고 좋다고 적었습니다. 이날은 지켜야 할 약속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만덕2동에 전입한 다음 날 함께 야간 순찰을 돌았던 자율방범대 청년이 장가를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꼭 가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게 오늘이라고, 행복하시길 빈다고 그는 적었습니다. 두 달 전 골목에서 한 약속 하나가 이렇게 지켜졌습니다.

일요일에도 월요일에도 글은 이어졌습니다. 영상통화로 당선 인사를 하고, 맞팔을 부탁하는 인사도 남기고, 부산 북구 청년취업 희망콘서트와 게이트볼 대회에서 시민들을 만났다는 소식이 짧게 짧게 올라왔습니다. 이 무렵 그의 글에는 보수재건이라는 말이 거듭 붙었습니다. 6월 15일에는 그가 선배라고 부르는 유인학, 임복진 두 사람의 말씀을 전하는 글이 올라왔고, 박상희, 강수림의 말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몸은 북구의 행사장을 돌고, 말은 보수 진영 전체를 향해 두는 나날이었습니다.

6월 17일 수요일에는 배준영, 김건, 김예지 세 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 다녀왔다고 알렸습니다. 당이 없는 의원의 국회 일과는 이런 초대와 참석으로 짜입니다. 당의 회의가 없는 사람에게는 동료 의원들이 여는 토론회 하나하나가 함께 일할 사람을 만나는 통로였을 것입니다. 같은 날 계정에는 "우리 구포시장 축하드립니다!"라는 짧은 축하도 올라왔습니다. 서울의 토론회장과 부산의 시장이 몇 시간 간격으로 한 계정에 나란히 적히던 날들입니다.

명함을 소개한 6월 18일 목요일, 같은 계정에 무게가 다른 글 두 편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아침 7시 47분의 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전투표 없애고 본투표 연장하는 것'이 저의 오랜 생각입니다." 한 해 전인 2025년 3월의 기사가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법무부장관으로 일할 때 수개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비상대책위원장과 당대표를 지내며 사전투표 용지에 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게 하자고 했고, 사전투표를 없애는 대신 본투표 기간을 늘리자고 공개적으로 주장해 왔다는 내용입니다. 사전투표는 정해진 선거일보다 앞서 미리 표를 던질 수 있게 한 제도이니, 없애자는 주장만 들으면 편리함을 줄이자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장에는 본투표 기간 연장이 늘 함께 붙습니다. 투표할 기회는 그대로 지키되, 관리를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 그의 오랜 답이었습니다. 그 기사 속 그의 말에는 비유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햇빛이 들지 않는 그늘에서는 곰팡이가 쉽게 자란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석구석 햇빛이 들지 않는 곳이 없도록 커튼을 열어젖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전 11시 45분의 글은 전날 나온 발표를 받아 적으며 시작합니다. "어제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의 발표로 이번 참정권 침해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투표용지 인쇄

축소에 대해 위철환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그는, 보고를 받고도 일이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되었고 중앙선관위원장에게는 보고도 가지 않았다고 한다는 발표 내용을 옮겼습니다. 요구는 분명했습니다.

그의 글에 따르면 위철환 상임위원은 이때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하며 야당은 탄핵소추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참정권을 소홀히 여긴 선관위 책임자는 탄핵까지 이를 수 있다는 선례를 세워야 한다고 그는 적었습니다. 민주당이 이 탄핵소추에 동의하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는 경고도 붙였습니다.

말로만 참정권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고 할 뿐,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상임위원이라고,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감싸고 들면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문장도 있었습니다. 1,392표 차이로 국회에 온 사람에게 투표지 한 장이 어떤 물건인지는 셈이 아니라 실감이었을 것입니다. 봄부터 여름까지 골목에서 손을 잡았던 사람들의 마음이 그 얇은 종이에 실려 국회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주말에도 동네 인사와 제도 이야기는 나란히 흘렀습니다. 금요일인 6월 19일에는 덕천제일교회에서 열린 6·25 나라사랑기도회에서 인사를 드렸고, 구포시장을 다시 걸었습니다. 지금의 세계가 1차 세계대전 직전과 비슷한 데가 많다는 오랜 생각을 적으며, 그런 내용을 쉽고 무겁지 않게 쓴 책 한 권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일요일에는 만덕의 경로당에 다녀왔고, 짧은 글 하나가 이 무렵의 공기를 전합니다.

"선거 끝나고 또 왔는데, 또 밥 주시네요." 선거가 끝나도 밥을 내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선거가 끝나도 찾아오는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덕천 카페입니다"라는 글처럼 동네의 아침을 알리는 글도 어김없이 끼어 있었습니다. 같은 주말, 그는 지역 방송 KNN이 만든 영상을 덧붙이는 말 없이 공유했습니다. 선관위 의혹이 밝혀지는 가운데 1년 전 한동훈의 발언이 다시 떠오른다는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후보 시절의 그는 제도를 비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글에서, 인터뷰에서, 커튼을 열라고 말하는 것까지가 그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말은 듣는 사람이 있어야 힘이 되고, 표를 얻어야 자격이 됩니다. 북구의 유권자들이 지난 6월 3일에 그 자격을 주었습니다. 국회의원은 다릅니다. 법률안을 낼 수 있는 사람, 말을 조문으로 바꾸는 일이 직업인 사람입니다.

6월 22일 월요일, 그는 의원이 되어 첫 법안을 냈습니다. 감사원법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넣자는 법안입니다. 한국경제와 파이낸셜뉴스가 이 발의를 보도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다룰 수 있는 주제는 끝이 없습니다. 경제, 교육, 복지, 국방. 그 많은 주제 가운데 그가 첫 번째로 고른 것이 선거였습니다.

자신을 국회까지 보낸 절차, 투표지가 인쇄되고 관리되고 세어지는 그 절차를 첫 일감으로 삼은 것입니다. 감사원은 나라의 기관들이 일을 바르게 하는지 살피는 기관이고, 직무감찰은 그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일 처리를 들여다보는 감사입니다.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도 그 눈길 아래 두자는 것이니, 커튼을 열라던 그의 오랜 주장은 이렇게 조문의 꼴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반대쪽에는 가볍지 않은 논리가 서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직접 세운 독립 기관이고,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의 감찰을 받게 되면 그 독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걱정입니다. 첫 법안은 그 두 논리가 마주 보는 한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법안은 혼자 내지 못합니다.

국회법은 열 사람 이상의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려야 발의가 되도록 정해 두었으니, 당이 없는 의원은 그 이름들부터 당 밖에서 구해야 합니다. 발의는 시작일 뿐이기도 합니다. 법이 되려면 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의 표결이 남아 있고, 6월 22일의 개정안은 이제 막 접수된 서류였습니다.

법안을 낸 월요일에도 계정에는 부산의 글들이 나란히 올라왔습니다. 화명생태공원에서 열린 원아시아페스티벌 파크콘서트에서 시민들을 만났다는 글, 2026 부산 북구 배드민턴 디비전리그에 다녀왔다는 글, 구포2동 청년회의 이웃돕기 나눔 일일호프에서 인사드렸다는 글입니다. 덕천로타리에서 매일 뵈던 신발형님을 다시 만났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이 열흘 사이의 짧은 글들은 거의 같은 말로 끝났습니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후보일 때 쓰던 맺음말이 의원이 된 뒤에도 그대로였습니다. "건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두 마디짜리 글도 그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선거 제도를 고치자는 법안이 접수되고, 부산에서는 배드민턴 코트와 생태공원의 인사가 이어지는 하루였습니다.

명함과 법안은 둘 다 종이입니다. 명함은 건네면 그것으로 제 일을 마치지만, 법안은 내는 것이 일의 시작입니다. 당의 이름 없이 낸 법안이 위원회 문턱을 넘고 본회의 표결까지 살아남으려면 다른 의원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고, 그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결국 투표지 위에서 뽑힌 사람들입니다. 오랜 생각이라고 그는 적었습니다. 그 오랜 생각이 이제 국회의 접수 번호를 달았습니다.

명함이 알리는 것은 이름이고, 법안이 바꾸려는 것은 규칙입니다. 이름은 열 번 말하면 알려지지만, 규칙은 표결을 이겨야 바뀝니다. 말이 법이 되는 데 무엇이 더 필요한가. 이 물음이 채 가라앉기 전에, 법의 언어로 따져 물어야 할 다음 물음이 국회 밖 공장에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 5 부

의원의 첫 여름

제9장. 공장과 법의 질문

2026년 6월 23일~6월 26일

2026년 6월 26일 금요일, 한동훈의 페이스북에 긴 글 한 편이 올라왔습니다. 무소속 의원으로 등원한 지 세 주가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전날 저녁에 올린 글을 하루 만에 다시 밀어 올린 것입니다. 제목부터 물음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총수 압박해 결정하면 '예'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물음 뒤에는 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사들이 반대하지 않으면 개정 상법의 충실의무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짓게 될 반도체 제2 클러스터, 그 큰 공장이 어느 땅에 서야 하는가를 둘러싼 글이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삼성과 SK의 총수들을 불러들여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에 지으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그는 적었습니다. 압박에 굴복한 총수들이 받아들이면 정부는 기업이 스스로 결정한 투자라고 발표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사건을 끌어왔습니다. 그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냈다고 말한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그는 물었습니다.

그 사건이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는 데 힘을 보탰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압박을 두고는 '쌍팔년도식 시대착오적 수단'이라는 말도 썼습니다. 정부와 총수들 사이에 실제로 어떤 말이 오갔는지, 정부 쪽의 설명은 어떤지는 그 글에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나 그가 그린 그림입니다.

글의 무게는 법 조문에 실려 있었습니다. 회사에는 이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주들이 맡긴 회사의 중요한 일을 이사회에 모여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상법은 이 이사들에게 충실의무를 지웁니다. 자기 이익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개정된 상법은 그 의무의 대상에 주주를 적어 넣었습니다. 이사는 회사에도, 주주에게도 충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동훈은 이 조문을 정부 쪽으로 돌려세웠습니다. 정치의 압박에 눌려 주주에게 손해가 되는 결정을 내리면 그것이 바로 충실의무 위반이고, 이사들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500만 국내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가진 회사이고, 국민연금에 가진 두 회사 주식만 지난달 기준 260조 원어치라고도 했습니다. 두 회사의 이사회를 향해서는 당부를 남겼습니다.

이사에게는 다수 주주를 위해, 기업의 미래를 위해 결정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니 강압에 반대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로 정권의 보복이 온다면 앞장서 보호하겠다고도 썼습니다. "단호히 반대하십시오."

소액주주를 지키겠다며 상법 개정을 밀어붙인 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라고 그는 적었습니다. 그 정부가 만든 조문을 그 정부를 재는 잣대로 되돌려 놓은 것입니다. 검사였고, 법무부장관이었고, 당의 대표였던 사람이 이제 당도 조직도 없는 초선 의원으로 정치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 남은 무기는 법의 언어였습니다. 권력과 기업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을 의무와 책임과 위법이라는 단어로 옮겨 적는 것, 그것이 몸에 밴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반도체 이야기는 이틀 전부터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6월 24일 수요일 오후에 올린 첫 글에서 그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둘러싼 다툼을 '명청대전'이라고 부르며, 반도체 공장의 입지 결정이 그 싸움의 '총알'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적었습니다. 정권이 제2 클러스터의 호남행을 기정사실로 만들고 있다는 것, 용인의 클러스터가 완공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포화 상태라고 말한다는 것이 그가 내세운 근거였습니다.

그는 2019년 SK하이닉스와 2023년 삼성전자의 용인 투자를 예로 들었습니다. 기업의 판단이 먼저 있었고 정부는 그 판단을 도왔다는 것, 오늘의 반도체 강국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투자의 성패는 10년, 20년 뒤에야 판명되는데 임기 5년의 정부가 정치의 계산으로 입지에 개입하면 그 비용과 위험은 기업과 국민과 다음 세대가 짊어진다고도 했습니다.

반도체는 나라의 미래가 걸린 산업이니 정치의 논리로 다루면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같은 글을 그는 사흘에 걸쳐 세 번 올렸습니다. 한 번 말하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고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장 하나가 서자면 많은 것이 따라와야 합니다. 끊기지 않는 전기가 닿아야 하고, 공장을 돌릴 물이 닿아야 하고, 일할 사람과 부품을 대는 회사들이 곁에 모여야 합니다. 공장이 오면 일자리가 오고, 떠났던 젊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든 큰 공장을 기다립니다.

사람과 돈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나라에서 그 기다림은 절실하고, 정부가 나서서 산업의 지도를 고르게 그려야 한다는 지역 균형 발전의 논리는 그 절실함 위에 서 있습니다.

한동훈도 균형 발전이 중요한 정책 목표라는 데에는 동의한다고 적었습니다. 그가 따져 묻은 것은 순서였습니다. 기업이 먼저 저울질하고 정부가 도울 것인가, 정부가 먼저 정하고 기업이 따를 것인가.

그가 내놓은 답은 다른 지역의 1등 산업을 뜯어오는 대신 그 지역이 1등 할 수 있는 산업을 키우자는 것이었습니다. 부산의 의원인 그가 공장을 기다리는 지역의 마음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기업의 판단이 먼저라고 썼습니다.

그 주에 그가 벌인 논쟁은 반도체만이 아니었습니다. 6월 23일 화요일, 그는 김형동 의원이 주최한 국공립 대학 통합모델 행사에 다녀왔고, 한기호 의원이 주최한 안보와 보훈을 주제로 한 행사에도 다녀왔다고 알렸습니다. 부산 개인택시 기사들의 모임인 일심동우회를 찾아 인사했다는 글도 이날 올라왔습니다. 선거 뒤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드렸었다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초선 의원의 평일은 국회의 행사장과 부산의 골목에 함께 걸쳐 있었습니다. 같은 날 페이스북에는 긴 반박문도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지목한 송영길 의원의 방송 인터뷰에 답한 글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쟁이 났을 때 군대의 작전을 지휘하는 권한입니다. 지금은 한국과 미국이 함께 꾸린 연합사령부에 이 권한이 있고, 이를 우리 군으로 옮겨 오는 것을 전작권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서둘러 가져오자는 쪽과 준비가 먼저라는 쪽이 오래 맞서 온 문제입니다. 그는 송 의원이 인터뷰에서 든 예를 하나씩 짚었습니다.

전작권을 스스로 갖고 있던 아프가니스탄의 정부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생각해 보라고 했고, 아덴만의 해적 대응 같은 작전과 핵을 가진 상대와의 전면전은 규모와 성격이 다르다고 했고, 60년 전 베트남에서의 사례가 오늘의 한반도에 그대로 옮겨질 수는 없다고 적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전작권을 돌려받는 것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문제 삼는 것은 조급한 전환의 시점과 방식이라고 그는 썼습니다.

글의 마무리는 이 문장이었습니다. "국익이 자주파의 허세와 환상보다 우선입니다."

6월 24일 새벽 3시 52분에도 글이 올라왔습니다.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되어 숨진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유족에게 사죄할 생각은 않고 조작 기소 운운하며

큰소리치는 민주당 의원들을 보니 기가 막힌다고 그는 적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압력이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을 가로막았다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도록 몰아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상대편이 들으면 다르게 말할 이야기이고, 이 역시 그의 글에 담긴 그의 주장입니다. 이 글은 이틀날 한 번 더 올라왔습니다. 새벽 세 시가 넘은 시각에 긴 글을 쓰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조급함인지, 잠을 밀어내는 무엇이 있었을 것입니다.

6월 25일 목요일에는 일본 아사히신문과 인터뷰했다는 소식을 올렸습니다. 아사히는 선거 기간에 북구의 유세 현장까지 직접 찾아와 취재하고 보도했던 신문인데, 선거가 끝난 뒤 다시 인터뷰를 청해 와서 기쁜 마음으로 응했다고 그는 적었습니다. 부산 북구의 골목을 돌던 무소속 후보를 이웃 나라의 신문이 기억하고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당의 이름 없이 치른 승부가 나라 밖에서도 이야깃거리가 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이 자신을 출국금지 했다고 스스로 밝힌 지 두 주가 지났을 무렵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 주에 그는 국회 의원회관 10층을 청소해 주시는 여사님들, 담당자들과 점심을 먹으며 애로사항을 들었다는 글도 올렸습니다. 대통령과 총수를 말하는 글과 청소 노동자들과 나눈 점심 이야기가 한 계정에서 이웃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이 왔습니다. 6월 26일 그의 걸음은 북구의 골목에 있었습니다. 경로당으로 가는 길에 구남초등 아이들을 우연히 만났고, 그 글에는 "다시 만난 딸콩이남"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덕천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새마을문고 26주년 기념식에서 인사했고, 실버벨 복지관 어르신들의 나들이길에 인사를 드렸고, 만덕천 살리기 행사에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한동훈이다'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도 올라왔습니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 말이 그날의 글에 거듭 적혔습니다. 서울을 향해서는 조문과 숫자로 따지고, 북구에서는 아이들과 어르신들에게 인사하는 하루였습니다.

저녁에는 짧고 뽀족한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정부의 정책실장이 삼성과 SK의 투자 문제를 방송인 김어준에게 먼저 찾아가 보고했다고 주장하며 그는 물었습니다. "김어준이 삼성, SK 대주주입니까." 밤 10시 55분에는 화면이 다시 반도체의 숫자들로 채워졌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전력과 용수가 충분해서 반도체를 옮긴다는 말이 정말이냐고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물었습니다.

태양광 전기는 해가 나와 만들어지는데 최신 반도체 공장은 100분의 1초도 전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클러스터가 돌아가려면 하루 43만 톤쯤의 공업용수가 필요하다는데 그 물을 대야 할 영산강 유역은 지금도 물이 모자란다고 적었습니다. 호남의 재생에너지만 고집할 까닭이 무엇이냐고, 부울경과 강원에는 안정적인 원전 전기도 있다고도 했습니다.

숫자와 단위가 빼곡한 글이었지만, 그 숫자들 역시 그가 골라 온 근거입니다. 글의 끝에서 그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썼습니다. 경로당 가는 길의 인사와 한밤의 공업용수 계산이 같은 날짜 아래 나란히 놓였습니다.

공장 하나가 설 곳을 정하는 일에는 전기가 걸리고, 물이 걸리고, 사람들의 밥벌이가 걸리고, 10년 뒤 20년 뒤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결정은 누가 내려야 하는가. 대통령인가, 총수인가, 이사회인가, 주식을 가진 500만 명인가. 한동훈은 상법의 조문을 들어 자기 답을 내놓았지만, 공장 하나의 자리는 누가 정해야 하는가라는 물음 자체는 조문 바깥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유월의 마지막 주말이 오고 있었습니다.

제10장. 제복과 전기요금

2026년 6월 27일~7월 3일

6월 28일 일요일 오후 다섯 시가 넘는 시각, 한동훈의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제2연평해전 승전 24주년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글이었습니다. 2002년 6월 29일, 온 나라가 월드컵의 함성에 들떠 있던 그날 아침, 참수리 357호 장병들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끝까지 지켜냈다고 그는 적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사람의 이름을 계급과 함께 하나하나 불렀습니다.

윤영하 소령, 한상국 상사, 조천형 상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 여섯 이름 앞에는 모두 고인을 뜻하는 글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여섯 분이 그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서해 연평도 앞바다에서 벌어진 남북 해군의 교전입니다. 북방한계선은 서해에 그어진 남북 사이의 바다 경계선입니다. 이 선 근처에서는 전에도 크고 작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북한 경비정이 그 선을 넘어와 기습 공격을 했고, 참수리 357호라는 작은 고속정이 맞서 싸웠습니다. 바다는 지켜졌지만 여섯 장병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나라의 월드컵 3위 결정전을 앞두고 거리는 붉은 옷과 응원의 함성으로 가득했고, 환호와 포성이 같은 날에 있었습니다. 함성이 워낙 컸던 탓에 그 아침의 바다가 한동안 나라의 기억에서 뒷전에 밀려 있었다는 말도 오래 있었습니다. 스물네 해가 지난 일요일, 조선 의원이 그 여섯 이름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는 이날을 승전 기념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진 싸움이 아니라 지켜 낸 싸움으로 기억하자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글은 기억과 예우의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한 나라의 품격은, 용기내고 헌신한 분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예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국가가 끝까지 함께한다는 믿음을 드리는 것이 보훈의 출발점이라고도 적었습니다. 보훈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 다치거나 세상을 떠난 사람과 그 가족을 나라가 보살피는 일입니다. 제복을 입은 사람은 나라의 부름을 받아 위험한 곳에 섭니다.

나라가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그 부름이 떳떳해지고, 보훈은 그 약속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는 여섯 분의 희생은 시간이 흐른다고 갚아지는 것이 아니라며, 보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예우를 현실에 맞게 바로잡는 일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글을 맺었습니다.

오래전에 정한 기준으로 오늘의 아픔을 재지 않겠다는 말로 읽힙니다. 사각지대란 제도가 미처 살피지 못하는 그늘을 이르는 말입니다.

도움이 필요한데도 조건이 맞지 않아 그 그늘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물네 해면 그날 태어난 아기가 어른이 되고도 남는 시간입니다. 남은 가족과 전우들은 그 시간 동안 매해 6월 말을 그 바다와 함께 보냈을 것입니다.

같은 날 새벽에는 시사저널과 한 인터뷰를 알리는 글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상처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다." 인터뷰에서 그가 한 말입니다. 몸에 남은 흉터는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전쟁터의 기억이 몇십 년 뒤에도 한밤중에 되살아나는 마음의 상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 병을 의사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부릅니다.

트라우마라는 말도 큰 충격이 마음에 남긴 상처를 이르는 말입니다. 그는 미국과 영국 등이 참전군인의 트라우마와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이 아닌 국가가 책임질 영역으로 본다면, 우리도 보훈의 범위를 몸의 보상에서 마음의 회복까지 넓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몸의 상처에 보상과 수술이 있듯 마음의 상처에도 그만한 돌봄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훈병원의 마음치유센터를 키우고 위탁병원과 지역의 정신건강기관을 이어서, 어디에 살든 심리상담과 치료와 가족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보훈병원은 큰 도시 몇 곳에만 있어서, 멀리 사는 사람은 나라가 정해 둔 동네의 위탁병원을 이용합니다. 마음의 치료는 한두 번의 진료로 끝나지 않고 오래 다녀야 하니, 사는 곳 가까이에 상담과 치료의 문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친 사람 곁을 지키느라 함께 지쳐 가는 가족까지 돌봄의 눈길에 넣었습니다. 기념일의 다짐과 진료실의 계획이 같은 날 한 계정에 나란히 있었습니다.

사흘 뒤인 7월 1일 새벽 1시 50분, 이번에는 야구장에서 벌어진 일을 두고 글을 올렸습니다. 고교야구 경기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상대팀에 대한 야유의 소재로 삼은 일이 있었고, 어린 선수들에게는 6개월 출장정지 처분이 내려진 터였습니다. 출장정지는 정해진 기간 동안 경기에 나서지 못하게 막는 벌입니다. 그의 글은 짧고 분명했습니다. 야유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학생들에게 6개월 출장정지를 하는 것은 과도합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따로 떼어 적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이 군사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다 계엄군의 총칼에 많은 목숨을 잃은 일입니다. 마흔여섯 해가 지난 지금도 아물지 않은 상처입니다. 남의 큰 슬픔을 응원전의 놀림감으로 삼으면 그 슬픔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다칩니다. 그 상처를 조롱하는 말은 그동안 대개 정치의 극단에서 나왔고,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보수 정당은 곤욕을 치렀습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끊어 말하는 목소리는 늦거나 작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당선된 보수 정치인이 새벽에 올린 글에서 머뭇거림 없이 잘못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광주의 표가 걸린 일도 아니었고, 지지층 모두가 반길 말이라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을 진영의 눈치보다 앞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그는 벌의 무게도 따졌습니다.

잘못이라는 판단을 먼저 놓고, 그다음에야 벌 이야기를 꺼내는 순서였습니다. 여섯 달이면 고교 선수에게는 한 시즌이 통째로 사라질 수 있는 벌입니다. 방송에서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말한 성인 방송인은 사과만 하고 방송을 계속하고 있지 않느냐고 그는 적었습니다. 어른의 잘못에는 무디던 저울이 아이들의 잘못 앞에서만 가혹해지는 것을 문제 삼은 주장입니다.

잘못은 잘못대로 가리되, 벌은 나이와 형편을 살피 매기자는 말이었습니다. 5·18의 상처를 아파하는 쪽과 어린 선수들을 걱정하는 쪽, 어느 한쪽만 편들지 않아서 양쪽에서 다 서운해질 수도 있는 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두 판단을 다 적었습니다.

다음 날인 7월 2일에는 세 문장짜리 짧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77법 만들면 저 같은 정치인은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호히 반대합니다. 헌법과 상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정치권에는 77법이라고 불리는 법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법이 무엇을 어떻게 바꾸자는 법인지 그는 이 글에서 풀어 쓰지 않았습니다. 글이 알려 주는 사실은 뚜렷합니다.

그 법이 생기면 자신 같은 정치인이 덕을 본다는 것, 그런데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단호히라는 말은 스스로 물러설 길을 미리 끊는 말입니다. 재판에서는 판사가 자신과

이해가 얕힌 사건을 말지 않는 것이 오랜 원칙입니다. 자기 일 앞에서는 누구나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입니다. 정치에는 그런 원칙이 통하지 않아서, 국회의원은 자신에게 이롭거나 해로운 법을 늘 스스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수혜자가 된다고 먼저 밝히고서 반대하는 문장은 눈에 띄니다. 헌법은 나라의 으뜸 약속이고, 상식은 보통 사람의 눈높이입니다. 그는 손익 대신 그 두 가지를 반대의 이유로 삼았습니다. 반대를 크게 외치는 일 자체가 평판을 쌓는 계산일 수 있다는 읽기도 물론 가능합니다. 속마음까지 들여다볼 길은 없습니다. 다만 이 한 주 그가 고른 말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결이 하나로 잡힙니다.

제복 입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상처를 챙기고 진영에 이로울 것 없는 광주 이야기에 먼저 선을 그은 사람이, 이번에는 자신이 덕 볼 법을 밀어냈습니다. 눈앞의 유불리 바깥에 판단의 기준을 세워 두려는 태도입니다. 계산이 전혀 없지는 않았겠지만, 헌법과 상식이라는 잣대를 먼저 꺼내 든 손은 신념 쪽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7월 3일 금요일 밤 10시 15분, 이 주의 마지막 글이 올라왔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에 따라 차등화해서 비수도권 산업용 전기요금을 수도권보다 낮춰야 합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공장과 회사가 쓰는 전기의 값이고, 차등화란 차이를 두어 다르게 정한다는 뜻입니다. 그 값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매겨서 수도권 바깥의 공장에는 더 싸게 받자는 것입니다.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는 지방과 바닷가에 많은데, 그 전기를 많이 쓰는 곳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그는 이미 법제화는 되었으니 미룰 이유가 없다면서,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으니 부작용 우려도 없다고 적었습니다. 법은 이미 있으니 실행만 남았다는 답과, 다른 나라가 이미 하고 있으니 두려워할 것 없다는 답. 반대편의 걱정을 미리 막아서는 두 개의 답이었습니다.

전기값이 싸지면 회사가 공장 지을 곳을 고를 때 지방이 눈에 들어옵니다. 공장이 오면 일자리가 따라오고, 벌이가 있으면 사람이 떠나지 않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는 부산에서도 낯설지 않습니다. 물론 값을 나누어 매기는 일에는 언제나 더 무거워지는 쪽이 생기기 마련이어서, 수도권의 공장들에는 반갑지 않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돈과 공장이 수도권으로만 몰려드는 흐름을 지방의 도시들은 오래 지켜보았습니다. 부산도 그 바깥에 있고, 북구는 그 부산의 한 동네입니다. 금요일 밤에 나온 한 주의 마지막 말이 전기요금이었습니다.

옛새 사이에 그는 스물네 해 전의 서해 바다, 마흔여섯 해 전의 광주, 이름조차 낯선 법안, 그리고 공장의 전기요금을 차례로 말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보이는 이야기들입니다. 겹쳐 놓고 보면 물음은 하나로 모입니다. 나라는 누구를 돌보는가. 그 비용은 누가 어떻게 나누는가.

바다에서 나라를 지킨 사람의 마음의 병을 나라가 책임지는 일도, 수도권과 지방의 공장이 전기값을 달리 내는 일도, 나라가 거둔 것을 어디에 먼저 쓰고 누구의 집을 덜어 줄지 정하는 일입니다. 한쪽은 나라가 진 빚을 갚는 일이고, 한쪽은 나라의 살림을 고르게 펴는 일입니다. 당장 표가 되는 일도, 내일 끝나는 일도 아니지만, 오래 두고 나라의 방향을 정하는 물음들입니다.

제복과 전기요금은 그 물음 안에서 만납니다.

7월 3일은 선거일로부터 서른 날이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그 금요일 밤의 게시글을 끝으로 한 주가 저물었고, 부산의 여름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의원의 첫 여름이 지나면 무엇이 남을지, 그 답은 아직 여름 속에 있었습니다.

에필로그. 백일 뒤의 질문

2026년 7월 3일

2026년 7월 3일 금요일 밤 10시 15분, 한동훈의 페이스북에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매겨서 수도권 바깥의 요금을 더 낮추자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은 이미 마련되어 있으니 미룰 이유가 없고, 다른 나라들이 이미 하고 있으니 부작용을 걱정할 일도 아니라고 그는 적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고지서의 숫자 이야기지만, 공장을 붙들어야 하는 도시에서는 일자리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가 주소를 둔 부산도 그런 도시입니다. 글 한 편으로 요금표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새 의원의 눈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는 보여 줍니다. 선거가 끝나고 서른 날이 지난 밤이었고, 3월 26일부터 헤아리면 꼭 10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100일의 처음에는 당 밖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1월 29일 국민의힘은 한때 당을 이끌던 사람을 제명했고, 3월 26일의 그는 어느 당에도 속하지 않은 채 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4월 14일 만덕2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 전입신고서 한 장이 놓였습니다. 주소 한 줄이 나라의 장부에 오르던 그날, 그는 끝까지 부산 북구에서 정치하겠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날, 스스로를 만덕 주민이라고 부르는 글도 올렸습니다.

소금빵을 건네는 이웃의 손과 선거를 앞둔 이사가 아니냐는 눈길에 같은 골목에 함께 있었습니다. 5월 15일 그는 무소속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와 겨루는 세 사람의 승부, 당이 주는 공천도 같이 뛰어 줄 조직도 없이 치르는 선거였습니다. 남은 것은 제 몸과 제 말이었습니다.

페이스북에는 하루 수십 건씩 글이 오르는 날들이 이어졌고, 골목에서 나눈 인사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쌓였습니다.

6월 3일 투표함이 닫히고 개표는 밤을 넘겼습니다. 개표가 시작되고 한참 동안 그의 이름은 앞서지 못했습니다. 그 몇 시간을 그는 숨죽여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6월 4일 새벽 1시 52분께 그의 표가 처음으로 앞섰습니다. 그때 차이는 578표였습니다. 만덕과 구포와 덕천에서 온 투표함이 열리는 동안의 일이었습니다. 개표가 모두 끝났을 때 차이는 1,392표, 1.70퍼센트포인트로 벌어져 있었습니다.

최종 집계는 한동훈 35,056표에 42.96퍼센트, 하정우 33,664표에 41.26퍼센트, 박민식 12,866표에 15.76퍼센트였습니다.

42.96퍼센트는 절반에 닿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가 얻은 표는 열에 넷 남짓이었고, 여섯 가까이 다른 두 후보의 이름 옆에 찍혔습니다. 1,392표는 당선증을 주었지만 절반의 지지까지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 새벽 같은 동네에서 만세와 탄식이 같이 나왔을 것입니다. 35,056명의 선택 곁에는 57퍼센트의 다른 선택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당선 인사를 받는 사람에게 그 숫자는 남은 숙제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6월 5일 그는 무소속 의원으로 국회에 처음 등원했습니다. 6월 22일에는 첫 법안을 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넣자는 감사원법 개정안, 1,392표의 새벽을 막 건너온 사람이 고른 첫 법안이었습니다. 표 한 장의 무게를 새벽의 숫자로 배운 사람에게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의 일은 남의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말로 하던 비판이 국회에 내는 문서가 되었습니다.

7월이 되어도 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날에는 고교야구 경기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야유의 소재로 삼은 일은 잘못이라면서도, 어린 학생들에게 내려진 여섯 달 출장정지는 지나치다고 적었습니다. 이튿날에는 이른바 77법을 두고 자신 같은 정치인이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헌법과 상식의 문제라며 반대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밤, 전기요금 글이 올라왔습니다.

국민의힘으로 돌아가느냐는 물음은 이 100일 안에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민심의 시계에 맞추겠다던 인터뷰의 말이 답을 대신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명으로 열린 100일은 복당을 정하지 않은 채 닫혔습니다.

만덕2동 창구에 놓였던 전입신고서와 국회 의원회관의 책상, 그 사이에 이 100일이 있습니다. 책상은 서울 여의도에 있고, 주소 한 줄은 부산 북구 만덕에 적혀 있습니다. 주소를 옮긴 사람은 주민이 되는가, 후보가 되는가. 봄의 창구가 남긴 물음에 100일은 절반만 답했습니다. 그는 후보가 되었고, 새벽의 개표를 지나 의원이 되었습니다. 무소속이라는 녀 자는 등원하던 날에도 그의 이름 앞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되었는가는 당선증이 답해 줄 수 있는 물음이 아닙니다. 끝까지 부산 북구에서 정치하겠다고 4월 14일의 약속은 이제 막 의원으로서의 첫 서른 날을 지났을 뿐이고, 약속이 지켜지는지 지켜볼 이웃들은 만덕의 골목에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100일째 되는 밤의 게시글 하나에서 멈춥니다. 의원이 된 사람은, 끝까지 주민으로 남는가.

한동훈, 부산 북구갑 선거전후 100일 (2026. 3.26-7.3)의 기록

ISBN |

저 자 | 김경진

펴낸이 | 김경진

펴낸곳 | 김경진 변호사 출판사

출판사등록 | 2025. 3. 10. (제2025-000015호)

주 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 91, 백일빌딩 304호

전 화 | 02-6338-1905

이메일 | kimkj008@gmail.com

가격 : 20,000원

© 김경진 2026

본 책은 저작자의 지적 재산으로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참고) 이 책의 일부 내용과 편집 과정에는 인공지능 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책을 잘 읽으셨으면 그리고 새로운 가치있는 지식을 얻으셨다고 판단되시면
농협 302-1096-0948-81 (예금주 김경진) 에 자발적 후원 부탁드립니다.